

# 함께 일하는 사회

www.hamkke.org

Work Together Society

2014

20

「나눔문화소셜미디어」를 위한 Work Media를 소개합니다.  
공유는 나눔을 위한 힘이 됩니다.  
공유는 나눔을 위한 힘이 됩니다.  
공유는 나눔을 위한 힘이 됩니다.

함께 일하는 사회 ————— 2014. 20





# 제주의 햇살,

# 바람으로 자연의 색을 담은 갈옷이

#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

### 주요 사업

토종 감을 이용한 전통 자연 '감염색법'을 보존·계승시켜 일상복, 외출복 등 제작, 색, 역사, 개민들레, 송이석 등 제주의 다양한 자생 식물들과 광물질을 활용해 칠구류, 양말, 각종 소품 및 변지 개발.

몽생이는 제주의 조랑말을 일컫는 방언입니다. 제주도 특유의 감물염색을 활용해 친환경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체험관광으로 지역 환경보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주)몽생이 대표 양순자

문의 064-796-8285 www.mongsengee.co.kr

## Opening

19호와 20호 간의 틈이 깊었습니다. 2013년 따뜻한 봄에 발행했던 '함께 일하는 사회'가 한 해를 넘겨 '다시 봄'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나요?

1년 만에 인사드리는 20호의 주제는 두루두루 '다시 봄'입니다.

청년들은 자신과 사회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그곳이 실은 진자리란 것을 깨달은 청년들은 '안녕하십니까?'라는 대자보로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한 장의 대자보로 시작한 '안녕하십니까?'의 움직임이 앞으로 어떤 변주곡을 연주할지 연중기획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집은 공유입니다. 세어러블의 창립자 닐 고렌플로는 공유를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살롱에서 사람을 만나 서로 무엇이 필요한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바보 같지 않나요? 하지만 그 만남이 지금은 공유경제의 큰 걸음이 되었습니다.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특집에 담았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을 하는 이선철 대표와 정지연 대표가 만났습니다. 문화예술로 비즈니스하는 어려움에 대해 진한 공감을 얻은 만남이었습니다. 농사짓는 언니들을 응원하는 언니네닷컴 윤정원 사무장과 밥 짓는 일이 보람 있다는 (주)슬로비생활의 한영미 대표도 만났습니다. 둘은 그 자리에서 네트워킹 가능한 사업 이야기를 '실제로' 진행하였습니다. 'WT가 만난 사람'과 '동고동락'에서 그 실한 만남의 결과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덧 뒷산 정수리에 눈이 녹고, 노란 산수유가 집 마당에 피어오릅니다. 아직 봄을 느끼지 못하셨다면 다시 주변을 두루두루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나를 주변을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일임을 '다시 봄'에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 Contents

착한소비365	(주)몽생이	02
커버스토리	문화예술창작자 지원캠페인 _ 진영 작가	04
연중기획	이 땅의 청년으로 산다는 것 _ 제2화 청년과 정치	06
WT가 만난 사람	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 _ 예술, 문화, 지역을 소재로 한 야생마 같은 비즈니스맨	10
<b>특집</b>	<b>상생을 향한 무한 에너지, 공유경제</b>	14
	• 내일을 위한 삶의 방식, 공유	
	• 공유 마니아, 공유 씨의 하루	
	• 캐나다, 공유경제와 집단적 소비문화의 정착	
	• 쉬운 공유, 똑똑도서관 자가증식에서 찾다	
이슈	전통시장 협동조합 함께 만들기 프로젝트	24
사회공헌백서	한국전력공사 _ 한전의 '전력을' 다하는 사회공헌활동	26
기부美	기부복 활용기 _ 재밌게 한 낚시, 2만 원의 행복	28
동고동락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언니네닷컴 윤정원 사무장 & (주)슬로비생활 한영미 대표 _ 이로운 먹거리로 이로운 세상을 일구는 이들	30
달인발견	동춘서커스 저글링 곡에서 박광환 _ 무대를 즐길 줄 아는 진정한 챔피언	34
현장 속으로	소셜벤처 자연과사람들 _ 자연을 품은 장난감, 사람을 품은 장난감	36
해외통신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제4탄: 라오스 카페 중선 _ 라오스의 행복한 카페 중선 이야기	38
칼럼	그린보이 _ 멋진 나와 멋진 지구를 위한 멋진 소비	42
착한 서포터즈	문화로놀이장 가구제작 워크숍 _ 버려진 가구의 따뜻한 변신!	44
기억에이지	나의 어제를 나누어 드립니다 _ 꿈을 키우는 사회 초년생 서일화	46
WT소식	재단 동정 및 활동	50





## 진영

2008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졸업  
2012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졸업

2013. 7. <반짝, at 한여름 밤의 소설어페어>, 에이컴퍼니  
2013. 1. <Small Masterpiece展>, 롯데갤러리 잠실점  
2012. 9. 개인전 <sweet away>, 갤러리 카페 일반소울  
2012. 9. <하이브랜드 아트페스티벌>, 양재동 하이브랜드 1층

### 이 호의 작가

작가 진영은 사람의 얼굴을 앵무새 이미지로 대체시켜 주체가 상실된 익명적 현대사회의 상황을 그려낸다. 작가는 현대인들이 반복된 일상 속에서 기계적으로 목적 없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는데, 이때 얼굴을 대신한 앵무새의 이미지는 현대인의 실체를 가리는 가면의 역할을 한다.

자신의 표정과 감정을 숨기고 무한 경쟁에 참여한 진영 작가의 '앵무새'들은 그들의 목적을 알지 못해 좌충우돌 방향하는 듯 보인다. 무방비 상태로 토네이도에 휩쓸려 가거나 펜로즈의 무한계도 계단을 목적 없이 줄 서서 따라가는 모습과 같은 유머러스한 상황을 통해 작가는 현대인들의 서글픈 현실을 익살스럽게 풍자하고 있다.

## INTERVIEW.

### 앵무새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앵무새는 외부의 말을 별생각 없이 흉내 내는 상징적 존재잖아요. 앵무새의 머리를 사람에게 대입한 것은 우리가 외부의 주어진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을 의미해요. 현대 사람들의 반복과 모방심리를 나타낸 거죠. 여러 등장인물을 통해 익명성을 표현하고 밝은 주제는 아니지만 캐릭터적인 요소를 통해 쉽고 익살스럽게 전달하려고 해요.

### 작가 '진영'은 어떤 젊은이인가요?

저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앵무새들 중 하나겠죠? 다만 계속 작품 활동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우리 사회의 특성을 인지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저 나름대로 재미있는 삶을 살며 즐기고 싶기에 유머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 작업은 작가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작업은 제가 사람과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작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요. 관심이 있어야 작가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작품의 의미나 느껴지는 부분은 보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끔 자기가 느낀 부분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기분이 제일 좋아요.

###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테리어나 디자인 제품 쪽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북유럽 디자인 제품들의 단순하고 유니크한 컬러감을 좋아합니다. 캐릭터로 만들어진 디자인 제품들도 좋아해서 가끔 제 작업으로 제품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요즘은 제 작업에 등장하는 앵무새 머리를 가진 사람을 주인공으로 그림책을 구상하고 있어요. 평면작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방법과 장르로 작업을 진행하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

<문화예술창작자 지원캠페인>은 사회적기업 '에이컴퍼니'와 함께합니다.

에이컴퍼니는 새로운 미술 기획을 통해 더 많은 예술가와 더 많은 사람들을 연결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미술 유통을 실천하며, 예술을 통한 소셜 임팩트(Social Impact)를 고민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www.acompanyasia / www.artistfanclub.com



표지 작품

1. swept away 01  
한지에 혼합재료, 50cmX50cm, 2012
2. parade 03  
한지에 혼합재료, 72.7cmX100cm, 2012
3. parrot circus 06  
한지에 혼합재료, 40cmX40cm, 2012
4. play the parrot  
한지에 혼합재료, 80cmX162cm,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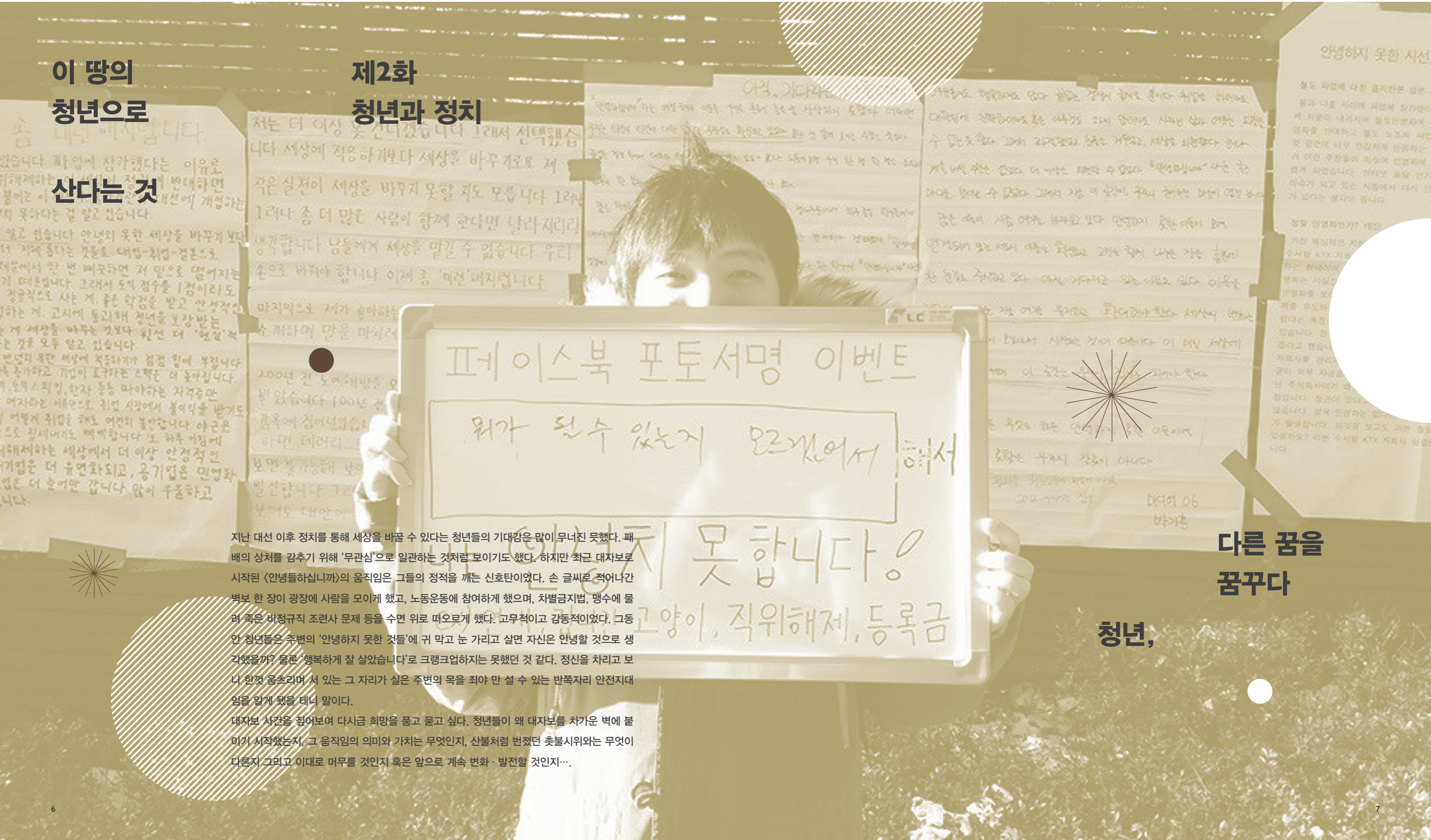
1. thewave 01  
한지에 혼합재료, 45.5cmX53cm, 2013
2. ride 02  
한지에 혼합재료, 22cmX27cm, 2012





# 이 땅의 청년으로 산다는 것

## 제2화 청년과 정치



지난 대선 이후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청년들의 기대감은 많이 무너진 듯했다. 패배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대자보로 시작된 <안녕들하십니까>의 움직임은 그들의 정적을 깨는 신호탄이었다. 손 글씨로 적어나간 벽보 한 장이 광장에 사람을 모이게 했고, 노동운동에 참여하게 했으며, 차별금지법, 맹수에 물려 죽은 비정규직 조련사 문제 등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고무적이고 감동적이었다. 그동안 청년들은 주변의 '안녕하지 못한 것들'에 귀 막고 눈 가리고 살면 자신은 안녕할 것으로 생각했을까? 물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로 크랭크업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껏 움츠리며 서 있는 그 자리가 실은 주변의 목을 죄야 만 설 수 있는 반쪽자리 안전지대임을 알게 됐을 테니 말이다.

대자보 사건을 짚어보며 다시금 희망을 품고 묻고 싶다. 청년들이 왜 대자보를 차가운 벽에 붙이기 시작했는지, 그 움직임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지, 산불처럼 번졌던 촛불시위와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이대로 머무를 것인지 혹은 앞으로 계속 변화·발전할 것인지...

### 다른 꿈을 꿈꾸다

### 청년,



청년, 다른 꿈을 꿈꾸다

글  
전효관 서울 청년일자리허브 센터장



청년 정치의 등장

내 입장에서 말하면, 최근에 청년 정치가 이슈로 등장한 것은 주체의 위기가 심각해지는 시점이었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만성적인 공포, 불안, 고립으로 인해 사회 그 자체의 존속이 의심스러운 국면이 가속화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일상의 생활을 지배 하면서 주체들이 경쟁을 내면화하고 있던 시점, 청년들이 자신의 생존 문제의 골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재난상태를 경험하고 있던 시점.

재난상태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에게 치명적이다. 미래를 사고할 수 없는 재난 상태 속에서 청년은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다. 청년이 더는 '미래'나 '희망' 같은 단어와 연관되지 못하고 '실업'이나 '문제'와 같은 단어들과 엮어진다. "88만 원 세대"는 청년을 지시하는 상징적 단어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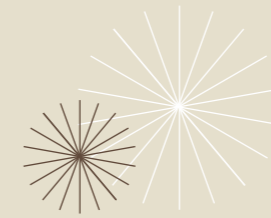
사회의 위기, 주체의 위기 속에서 청년 정치의 등장은 하나의 기대감을 반영한다. 그럼시의 말을 빌리자면, "위기관 오래된 것은 죽어가고 있으나 새로운 것은 아직 등장하고 있지 못한 시기"이고, 이러한 전환기에는 "다양한 병리적 증상들이 나타난다". 위기의 해결은 기존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고, 당연히 기존의 주체가 아닌 다른 주체의 등장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청년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나에게 있다.

기존 문법에 좌절한 청년 정치

청년 정치의 급작스런 등장과 결과는 이미 모두 알고 있다. 청년 비례대표가 여당과 야당 모두 수용되었고, 청년당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선거 이후, 변화가 있다면 현 정부에서 청년위원회가 설치된 것 정도가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청년 정치의 정체성은 여전히 모호하고, 그나마도 기존 정치의 문법 속에서 선거 캠페인 이후 급속하게 해체되어 가고 있지 않나 싶다. 기존 정치의 청년 정치를 사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천 공간을 제공하지 못했고, 청년 정치의 주체들은 기존의 문법 속에서 긴장감을 높여내지 못했다.

나는 이 과정에서 하나의 지점을 주목한다. 청년 정치의 등장에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급속한 해체 과정에서 혹시 청년 정치의 과녁이 모호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청년 정치 참여의 목표가 다른 정치가 아니라 기존 정치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전제와 상관적이었다고 느낀다. 청년이 겪는 곤궁한 처지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정치 참여를 한다는 생각은 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현실 원칙'만으로는 넘어서 수 없는 벽이 있다는 점에서는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



다른 정치의 가능성

선거 이후, 청년 정치는 파괴력을 잃은 듯 보였다. 청년들은 다시 개인과 취업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묘사되기 시작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다시 속해야 하는 것처럼 보였다. 가끔 '일베'가 스캔들이 되고, 청년은 또다시 멘토들을 찾아 열광하는 듯했다.

어느 날,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가 붙었다. 안부를 묻는 형식의 대자보들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기에 이른다. 이 대자보는 사회적 약자들이 당하는 고통과 공감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현실을 환기시켜 청년들이 사회 내 존재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계기로 작용한다. 나는 이 사건을 다른 방식의 청년 정치, 청년 당사자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언어를 통해 다른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한다.

물론 다른 정치의 공간은 여전히 비좁을 수 있다. 무한경쟁으로 치달아가는 사회는 다른 길을 사고할 기회 자체를 봉쇄한다. 하지만 경쟁과 불행으로 몰고 가는 사회에서 벗어나려는 저항은 기존의 진보정치처럼 분명한 형태를 띠진 않지만,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실천되고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청년들이 아주 작은 규모로 다른 질서를 모색하고 서로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시도는 무수하게 많다. 이 흐름은 비정치적이지만 다른 정치를 꿈꾸는 '자율적인 네트워크 실험'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

다시 청년과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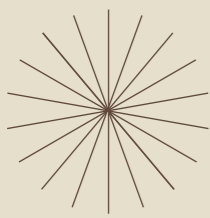
다른 정치의 가능성은 다른 질서를 만들어가는 주체의 등장과 밀접하다. 말하자면 청년 정치가 성립할 수 있는 전제는 다른 관계와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체의 등장과 연결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 정치는 비전과 가치에서도, 그 방식에서도 기존 정치와의 차이를 생산하고 긴장을 높여감으로써 청년 정치의 구체성을 획득해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기존 패권적인 권력의 문법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현실의 존재들과 소통을 통해 공감을 넓혀가는 실천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지역과 마을에서 삶을 일구는 청년들, 동료와 사회를 위한 일을 모색하는 청년들, 협력과 협동의 경계를 만들어가는 청년들,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만드는 현장은 다른 사회적 실천의 현장이자 청년이 사회와 관계 맺는 구체적인 실증 사례들이다.

다른 정치는 의외의 곳에서 의외의 방식으로 출현할 수도 있다. 자신들의 동료와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자율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수많은 현장이 새로운 청년 정치의 현장일 수 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공공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창조적인 공유지와 협력적인 공공지대를 만들어가는 정치의 과정이기도 하다. 자원 배분과 권력 행사를 넘어 창조적인 공유지와 새로운 공공지대를 만들어내는 실천,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는 위기의 사회를 구원하는 사회적 실천과 분리될 수 없다. 우리가 청년 정치를 기대하고 열망하는 이유, 그것은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는 다른 정치가 필요하기 때문은 아닐까?

1-2-4. 커뮤니티 '안녕들 하십니까'의 포토서명 사진출처: 페이스북 '안녕들 하십니까' [www.facebook.com/cantbeokay](http://www.facebook.com/cantbeokay)

3. 주현우 씨의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전효관

연세대학교 사회학 박사. 하자센터 설립과 운영 그리고 서울시 청년허브의 설립과 운영을 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초대 위원과 전남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 예술, 문화, 지역을 소재로 한

# 야생마 같은 비즈니스맨

취재 · 글  
정지연 (주)에이컴퍼니 대표



3년 전쯤 서울문화재단의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이선철 대표의 강의를 들었을 때 나는 막 창업을 시작한 이후였다. 정확히 말하면 회사라고 등록만 해 놓고 반년 째 지원금이나 상금 이외의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고, 번듯한 직원이 한 명 없이 여전히 창업 프로그램을 들으러 다니고 있던 때였다. 자신의 20대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들려주는 이선철 대표의 이야기는 문화기획을 꿈꾸는 햇병아리 청중들을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특유의 빠른 말투 속으로 미끄러지듯 매끈한 표현들 또한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 같아 부러웠다. 그는 평창에서 지역 기반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감자꽃스튜디오'라는 이름이 가진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감자를 캐는 아저씨가 아니라 스마트한 기획자의 모습으로 기억에 남았다.

지역에서 주민들과 어울려 문화예술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큰 자본과 멋진 기획으로 힘을 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지역과 공간에 녹아들며 삶과 비즈니스의 연결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단단히 쌓아올린 내공이 없으면 쉽지 않은 일을 하는 이선철 대표를 이번엔 강연 자리가 아닌, 인터뷰이와 인터뷰어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지역 문화활동의 성공 케이스로 자리 잡은 '감자꽃스튜디오'와 이선철 대표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에이컴퍼니가 운영하는 동승동의 '미나리 하우스'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졌기에 자연스럽게 '미나리 하우스'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이제 막 예술을 문화로, 문화를 지역 안으로 가져가는 일에 흥분하기 시작한 인터뷰어에게 이선철 대표와의 만남은 시기적절한 대비와도 같았다.



## 도시에서 생활하던 분이 평창으로 내려가 감자꽃스튜디오를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 시작은 어땠나요?

저는 도시 부적응자이거나, 극단적 생태주의자가 아니고, 농촌이 좋아서 평창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살이 찌서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자연을 택했고, 자연이 있는 곳에 가보니 거기에 상황이 있었어요. 나에게 주어진 도구는 문화이기에 주민으로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농촌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뿐이에요. 제가 하는 행위의 결과물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면야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겠지만, 처음부터 새마을지도자처럼 농촌 지역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죠.

20대에 폐교로 문화학교를 만들었던 경험이 두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폐교가 1년 치 임대료만 내면 넓은 공간을 다 쓸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큰 욕심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비밀 공간을 생각하고 내려갔다가 1년 만에 30kg이 쯤 빠졌어요. 감자꽃스튜디오도 시작되었구요.

## 폐교는 주민들에게 어떤 곳이었나요? 감자꽃스튜디오로 바뀐 후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감자꽃스튜디오의 원래 건물은 많은 주민이 어린 시절 다녔던 모교예요. 자기 모교가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었는데, 몇 사람이 들어오더니 건물도 멋지게 변하고, 알고 보면 원형도 유지되어 있고, 사진도 찍

어서 기념관처럼 하나 만들어 드리니까 일단은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만으로도 의미를 알아주셨죠. 거기에 문화 프로그램이 들어가니까 더 좋은 거고요. 사람 사는 동네니까 생각이 다른 경우는 있죠. 예를 들어 펜션 사장님처럼 이해관계가 직접 있는 사람은 굉장히 호의적이고, 아닌 사람들은 무관심하거나 '뭐 그래도 좋은 일 하는 곳이지' 하는 거죠.

##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이야기할 때 감자꽃스튜디오가 성공 사례로 꼽히는데요, 감자꽃스튜디오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대체로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직접 돌아오는 혜택은 없어도 자식이나 지역의 아이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지역의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에 가서 뮤지컬을 보고 왔는데 다음날 군청 과장님이 전화하셨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사심 없이 하는 행동인데 좋은 여론은 그렇게 형성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감자꽃스튜디오 매니저가 뮤지션인데, 지역에서 롤모델이 되고 있어요. 엔지니어이고, 예술강사이고, 음반도 나오고, 기획 일도 하고, 경희 사이버 대학 다니니까 대학생이기도 하고요. 그 친구가 시골에 사는 동년배 친구들보다는 생활도 훨씬 자유로운데, 급여도 낮지 않은 편인 거죠. 사실 시골 청년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편의점 알바밖에 더 있겠어요, 단란주점 웨이터하고요. 그에 비해서 감자꽃스튜디오에 소속되어 있으니 다양한 기회들이 생기는 거죠.



## 감자꽃스튜디오의 재정적 운영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 죽을 것 같아요. 그 시골구석에서 그 큰 공간을, 보조금도 없이 직원을 유지하기가 쉽겠어요. 그래도 저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은 안 해요. 비즈니스가 아니라 소셜액티비스트 역할로만 가니까 문화예술 비즈니스가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스스로 좌절해요. 사회적 가치는 본래의 비즈니스 경쟁력이 밑을 단단히 받쳐줘야 힘을 발휘하고, 그로 발생한 이익을 공동체를 위해 쓰도록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전 감자꽃스튜디오 한 번도 농촌 공간이라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제가 농촌 리더도 아니고요. 이게 감자꽃스튜디오의 운영철학과 맞닿아 있어요. 제가 왜 하루에 스케줄이 많겠어요. 돈 벌려고 스케줄이 많은 거예요.

## 문화예술로 비즈니스를 만들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감자꽃스튜디오는 어떻게 돈을 버나요?

단계별 수익구조의 변이가 있어요. 일단 감자꽃스튜디오라는 공간은 개인이 설립할 수 있는 규모는 넘어섰죠. 1단계는 공공자원을 활용하는 것이었죠. 그건 기본이 되는 물리적 인프라이고, 이후에 프로그램적 인프라가 있으면 주변의 평판이 생기기 시작해요. '감자꽃스튜디오가 좋은 일 많이 한대, 지역에서 폐교를 살려냈대, 지역의 청소년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있대.' 그럼 이 입소문 장사로 방문객들이 현장을 보러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또 감자꽃스튜디오는 거기서 축적되는 다양한 스토리나 콘텐츠를 가지고 사례발표도 하고, 강의도 하는 거죠. 결국 제가 외부에서 강의하는 것은 돈 안 되는 장사에 강의한 돈을 보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 공간과 여기에서의 활동이 나에게서 곧 콘텐츠가 되고, 나는 이를 활용해서 고급 지식노동을 하는 거죠. 이 방식은 영국식 사회적기업 모델이에요.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나 공익성을 앞세워서 단체의 브랜드 이미지와 레PUTATION을 높여 직접 수익도 창출하지만, 이 콘텐츠로 인한 출판, 교육, 컨설팅, 연구로 수익모델을 다변화하는 거죠. 물론 이런 수익구조는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감자꽃스튜디오가 동네 애들한테 무료로 악기 가르쳐주는데 남는 게 뭐가 있겠나.' 걱정하죠.

## 감자꽃스튜디오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감자꽃스튜디오는 농촌이라서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굉장히 긴밀해요. 만약 감자꽃스튜디오 안에 숙박, 식사, 자판기가 다 있어서 나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원스톱으로 다 돈을 쓰고 간다면 그건 섬이겠죠. 하지만 어차피 감자꽃스튜디오가 모든 부분을 감당할 수 없으니 동네에서 할 수 없는 부분만 케어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감자꽃스튜디오가 돈을 번다 해도 아무에게도 욕먹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 1인당 10만 원을 책정한 40명의 관광객이 24시간 동안 마을에 와요. 그럼 그중



에 감자꽃스튜디오가 책임지는 부분이 6시간이라 하면, 우리는 10만 원 중에 6/24만 갖는 거죠. 밤부터 아침까지 숙박하는 펜션 사장님이 돈을 가장 많이 갖겠죠. 부녀회나 된장찌개 집도 돈을 벌게 되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 팀이 마을에 와서 쓸 수 있는 돈 중에 대부분이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입구에서 영업사원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감자꽃스튜디오의 직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현지 직원이 아니면 출퇴근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는 스마트워크를 해요. 평창의 현지 직원도 있고, 서울에 사는 직원들도 있는데 모두 편한 곳에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 출근하죠.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이곳저곳에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주문진에도 춘천에도요. 원래 프로젝트가 끝나면 철수하면 그만인데, 그것 때문에 채용했던 현지 직원들도 좋아서 공공프로젝트가 끝나도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하면서 춘천, 강릉, 평창에 매니저로 두고 있죠. 공통의 관리, 연구, 홍보, 기획 이런 건 시골에서 사람 구하기 힘들니까 서울에서 채용을 했고, 대학로 사무실에 있기도 했었는데 다들 결혼을 해서 지금은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연구팀장은 서울 강남 신사동, 관리팀장은 경기도 김포, 홍보담당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다가 가끔 얼굴 보자며 모이죠.

**문화예술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문화예술은 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도구, 지역주민에게는 여가의 도구, 펜션 사장님에게는 소득과 관광의 도구, 감자꽃스튜디오의 경우에는 네트워크의 도구, 캠프나 축제의 도구, 송년회의 도구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매년 12월 24

일 송년회로 주민들이 다 모여서 각자 준비한 공연을 하고 놀아요. 거기 예산이 있겠어요, 프로듀서가 있겠어요? 결국은 서로 도와주는 거죠. 시골교회의 성극 경연대회로 끝날 수 있는 건데 목사님이 과감히 커뮤니티로 갖고 나오시니까 마을 전체의 축제가 되는 거고, 교회 역시 하나의 공동체로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던 곳인데 문화공간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니까 상부상조하는 것이죠. 결국 예술가 및 예술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의 소재이자 도구라고 생각해요.

문화경영이나 문화기획영역이 여러 가지로 나뉘볼 수 있어요. 제가 영국에서 다닌 학교도 그 분야에서는 꽤 유명한 학교였는데, 입학할 때 과 이름이 arts management였어요. 예술경영, 주로 전시기획, 예술단체 운영, 공연기획 이런 좁은 의미의 공급자인 예술가의 활동을 돕는 수단으로서의 예술경영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학과 이름이 culture management로 바뀌었어요. 점점 더 문화예술이 도구로서 쓰일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니까요.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복지의 영역에서도요.

**미나리 하우스는 예술가 작업실과 게스트하우스, 전시 공간이 합쳐진 곳이에요.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미나리 하우스로는 돈 벌기 어려워요. 그리고 일단 대표가 여기 들어와 살아야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공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안에서 하고 싶었던 일을 펼칠 수 있는 장으로 운영하면 좋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게스트하우스는 기능적인 것이고, 더 큰 의미에서 이곳에서는 문화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미나리 하우스를 가게 되면 시트콤을 찍는다' 는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이 공간은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잖아요. 제가 뉴욕에 갔을 때 'Musician's



1-2. 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와 정지연 (주)에이컴퍼니 대표의 모습



**(주)에이컴퍼니**  
공정 미술(Fair Operating Art)을 실천하며 미술 작품 유통 및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통해 대중화를 시도하고 있다. 동송동에 '미나리 하우스'라는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여름에는 <브리즈 아트페어>를 개최한다.

Hotel' 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음악 시설이 있는 건 아니고 뮤지션들이 게으르다는 점에 착안해서 'Breakfast 11 o'clock'이라고 써 놓은 거죠. 뮤지션 타임에 맞춰서 라운지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로 켜놓고 리셉션에서는 각종 공연 할인티켓을 팔고요.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주니까 뮤지션들은 거기 오는 거죠. 그들한테는 그곳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곳이니깐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태계에서 서식하는 관계자들 사이에서의 인식과 만족도 차이예요. 대국민 인식 재고까지는 필요 없고 일단 네트워크 안에서 성공했다고 입소문나면 성공인 거예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인큐베이팅, 멘토링 등이 쏟아지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교수님 같은 사람들입니까 대체로 시장의 성과보다는 지표적 성과를 훨씬 중요하게 받아들이죠. 하지만 문화 비즈니스 따로 있고 경제 비즈니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현상이 시장에서 성과를 얻으면 사람들이 그걸 연구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문화가 되는 거죠. 성공 사례들은 공공지원이나 인큐베이팅의 결과물이 절대 아니에요. 지원은 지원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사업을 책임져주지 않는 거잖아요. 지원은 도구이고, 환경이고, 촉매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인큐베이팅도 기본 역량과 경쟁력이 있는 상황에서 잘 모르는 부분을 채워준다거나, 멘토링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것이지 교육훈련을 통해 사업으로 육성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키워드는 마을 방문자들, 농촌 관광의 콘텐츠



3. 마을축제\_봄소풍  
4. 주민송년축제\_성탄극장  
사진출처: 감자꽃스튜디오 (www.potatoflower.org)

츠를 조금 더 고급화하는 것이예요. 나이에 맞는 비즈니스의 경험이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김덕수 사물놀이이라고 하는 전통문화 콘텐츠, 비영리단체, 글로벌 활동으로 20대를 보내고, 30대에는 자우림, 깍스, 이승환, 롤러코스터랑 대중문화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에 대한 단련이 되었어요. 40대에는 지역문화, 문화예술교육을 하는데 시간을 보냈다면 다가올 50대에는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관심 있는 게 승마예요. 말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부가 가치가 있는 동물이잖아요. 동네 환경이 좋으니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얼마 전에는 제주도 가서 말 농장만 12곳을 보고 왔어요. 그 다음 관심 있는 게 맥주 양조이고요. 막걸리 소주는 저부가라서 관심이 없어요. 하우스 맥주에 주세가 폐지되고 나서 제주도, 완주, 가평 지방에서도 하우스 맥주를 하고, 이태원에 하고 있죠. 감자꽃스튜디오 마당에도 호프집 하다가 문 닫게 된 선배 덕분에 엄청 큰 독일제 양조기계가 이미 큰 게 들어와 있어요.

**앞으로도 감자꽃스튜디오를 기반으로 사업과 생활을 하실 건가요?**

감자꽃스튜디오라는 공간이 나의 생활공간이었지만, 방문객이 많아져 이제 제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대신 인근의 산 중턱에 컨테이너를 디자인해서 재밌게 꾸미고 살고 싶어요. 나 자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나만의 거처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스마트 기반으로 유통시키고 싶고요. 이렇게 제 shelter에서의 삶이 유통이 되면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영감이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책이 될 수도 있고, 예술 작품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WT





# 상생을 향한

## 무한 에너지, 공유경제



## Sharing Economy

### “공유경제의 반대는 자살이다.”

닐 고렌플로(공유경제 운동을 다루는 웹진 '세어러블' 창립자, 현 서울시 공유경제 국제자문단 위원)의 말이다. 어쩌서 우리는 이렇게 으름장에 가까운 말을 들어야 할까? 안타깝지만 이 말은 과장일 수는 있지만, 거짓은 아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주축으로 한 자본주의 경제는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파이를 더 크게 키우기 어려워졌고, 이미 커진 파이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파이를 키우는 데 쏟아 부은 자원은 바닥이 났고, 지구는 더워졌고, 나무는 베어지고, 강물은 말랐다.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끝은 종말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마저 든다.

반면 공유는 그 반대편에 서 있다. 자동차를, 한번 입으면 말 옷을, 쓰임이 잦지 않은 공구를 사지 않는다. 건물을 새로 짓지 않고, 가게가 바뀔 때마다 실내장식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 나에게 쓰임이 적은 물건은 나눠 주고, 내가 필요한 것들은 나눠 받는다.

P2P의 단순한 주고받음으로 공유를 생각한다면 당신의 상상력이 부족한 것이다. 공공의 자금으로 주차장을 만들거나 공간을 사서, 지역 주민들과 저렴한 가격에 공유할 수도 있다. 단기간 임대할 수 있는 파일럿 상점에 입주해 리스크를 줄이고, 고가의 기계를 갖춘 기계작업장(Tech Shop)을 함께 쓸 수도 있다. 나아가 지역민이 함께 대안 에너지를 만들어 공유할 수 있다. 세계 유명 대학 강의를 공유(OCW)하는 지식의 공유, 브랜드의 공유(Maker Ecosystem), 저작물로 서로 싸우기보다 공유하는 오픈소스 생태계(OSE)도 '공유'의 상상력 안에 이미 존재한다.

공유는 당신에게 좀 더 창의력을 발휘해보라고 말한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지구를 좀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공유는 자원소모를 낮추지만 자원에 대한 접근성은 올린다. 더불어 이웃과 가까워지고 지역 경제와 유대감이 생긴다.

이번 특집은 '공유'를 통해 이뤄졌다. CCL보급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CCKOREA 권난실 팀장이 공유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그려줬다. 클라우드산업연구소에서 공유경제로 보낸 하루를, 글로벌빈도우에서 캐나다의 공유경제 모습을 『함께 일하는 사회』에 '공유'해 주었다. 또한 지금 당신이 선 자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유의 모습을 '똑똑도서관'에서 찾아보았다.



# 내일을 위한 삶의 방식, 공유

상생을 향한 무한 에너지, 공유경제

글 권난실 CCKOREA 팀장



### 권난실

미디어+비영리를 키워드로 주로 활동하였다. 사람과 그 사람들이 만 들어가는 관계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새로운 사람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최근에는 공유와 개방에 대해 열심히 공부중이다.

### CCKOREA(Creative Commons Korea)

공유의 가치를 믿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보급을 비롯한 여러가지 오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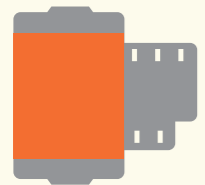
##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사용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나눠 쓰는 협력적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주목을 받고 있다. 2011년 타임지는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 중 하나로 공유를 선정하였으며, 2013년에는 유명 경제지들이 앞다퉈 공유경제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실제로 오늘날 세계 공유경제의 규모는 매년 8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로렌스 레식 교수가 그의 저서 리믹스(Remix)에서 처음으로 언급하며 조명되기 시작한 공유경제는 같은 해에 세계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관심을 받게 되었다. 높은 실업률과 가계 부채 속에서 자동차, 옷, 방, 정보, 시간 등을 소유하지 않고도 필요한 만큼만 빌려 쓸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을 빌려 줌으로써 추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은 효율적 소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었던 것이다. 과거 우리들은 이웃끼리 스스럼없이 물건을 빌려주고, 빌려 썼다. 그 형태가 IT 기술의 발달로 쉽고, 편리하게, 보다 많은 사람들과도 가능해졌다는 점이 공유경제의 성장을 가속시켰다. 인터넷이라는 개방된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를 연결해주는 효율적인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하게 되었고, SNS 등에서 축적된 개인들의 평판이 신뢰와 안정성을 보장해줌으로써 공유가 하나의 비즈니스로서 가능해진 것이다. 공유경제는 무분별하게 자원을 사용하고,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였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서 벗어나 환경오염을 완화시키고, 서로 간의 교류를 통해 단절되었던 공동체를 복원시킨다. 비즈니스의 측면 외에도 각국의 정부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공유경제를 활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공유의 가치가 주목을 받으면서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공유경제 모습은 우리 일상의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면 접을 위해 구입하기에는 가격이 만만치 않은 정장을 기부 받아 구직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대여해주는 정장 공유 서비스가 있으며, 작아진 아이 옷을 교환할 수 있는 곳도 있다. 책꽂이를 공유하여 서로가 가지고 있는 책을 빌려볼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함께 밥을 먹으며 관심사를 나누기도 한다. 자주 쓰지는 않지만 가구를 조립하거나, 어딘가를 수리할 때 꼭 필요한 공구는 주민 자치 센터에서 빌려 사용할 수 있다. 비싼 사무실

## 공유경제의 모습들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일할 수 있는 코워킹 공간들도 곳곳에 생겨나고 있으며, 우리집의 남은 빈방을 여행객에게 빌려주는 빈방 공유 서비스와 필요한 시간에만 차를 빌려 쓸 수 있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공유경제 사례가 되었다. 물건만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음악, 사진 등의 창작물과 정보, 사람들의 경험과 시간도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현지 가이드가 되어 숨은 명소와 맛집을 알려주는 여행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사람이 책이 되어 그 사람의 경험과 생각을 책을 읽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가 가진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을 공유로 해결하고자 지난 2012년 공유도시를 선언하고, 다양한 공유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 스스로도 유휴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며 공유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에는 자치구 중심의 생활 밀착형 사업들을 지원하며 그 영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 내일을 위한 삶의 방식, 공유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개인 간의 거래에서 어떻게 세금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과세 문제와 공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하는 책임 소재 문제 등에서 기존의 법 규정과 충돌하고 있으며, 실제로 해외의 경우 빈방 공유와 자동차 공유 서비스 기업들의 불법 여부가 최근 쟁점화되고 있다. 공유 되는 중고 물품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뢰 장치 마련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가 공유경제에 주목했던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기업 모델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다. 재화나 서비스, 경험이나 지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연결하고, 관계에 힘을 북돋아주면서 협력의 방법을 익히고, 더불어 사는 문화를 만들기 위함이다. 공유경제는 변화를 이끄는 새로운 한 걸음이다. 공유경제가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닌, 우리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멀리 내다보고 차근차근 한 걸음씩 내딛는 꾸준함이 필요할 것이다.





# 공유 마니아,

## 공유 씨의 하루



### 카풀? 카셰어링! <쏘카>

쏘카는 주택가 및 대중교통 환승이 쉬운 곳에서 필요한 시간(최소 30분부터 10분 단위로 사용 가능)만큼 차를 빌릴 수 있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이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전화로 예약하며 무인 시스템으로 대여 및 반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된다.  
www.socar.kr

### 비싼 정장, 빌려 입자! <열린옷장>

열린옷장은 '모든 사람이 옷장을 열어 서로의 옷을 공유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그중 시기에는 비싸고 입고 다닐 일은 적은 정장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옷은 사회 선배들에게 기증받아,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대여해주고 있다.  
www.theopencloset.net

### 함께 일하는 공간, <코업>

미팅룸, 사무실이 필요할 때는 코업을 방문해 보자. 코업은 개인과 작은 기업들이 사무실을 공유하면서 함께 일하는 공간(coworking space)이다. 칸막이 없는 책상과 의자, 사무기기 등 업무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1시간 ~ 30일(1일 만 원, 30일 24만 원 등)까지, 이용 기간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면, 코업의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 단순한 공간의 공유뿐만 아니라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도 이뤄지고 있다.  
co-up.com

### 책장을 공유하자, <국민도서관 책꽂이>

국민도서관 책꽂이는 버려진 아깝고 낡은 곳은 마땅찮은 책을 한곳에 보관하면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 달에 3,000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택배비만으로 한 번에 최대 9만 원어치의 책을 두 달간 빌려볼 수 있다. 2014년 2월, 국민도서관 책꽂이에서는 2만 6,398권의 책이 공유되고 있다.  
www.bookoob.co.kr

8 : 30

“앗, 지각이다!”

알람 맞추는 걸 깜빡 잊고 잔 공유 씨, 이마에 내 천(川)자가 그려진 부장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지요. 공유 씨는 무엇이 생각났는지 스마트폰을 켵니다. 카셰어링(Car-sharing)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집 근처에 주차된 차를 발견합니다. 차 주인이 마침 오늘은 차를 쓰지 않는다는군요. 공유 씨는 약간의 이용비를 지급하고 출근길에 차를 빌리기로 합니다. 평소 한 시간씩 걸리는 출근길이 카셰어링 덕분에 30분으로 줄었습니다. 공유 씨, 오늘도 무사히 세이프!

12 : 00

“공 팀장! 출장 좀 다녀와야겠는데”

협력사 사람들과의 미팅이 잡혔습니다. 급하게 출근하느라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했는데! 하지만 이번에도 공유경제가 빛을 발합니다. 공유 씨는 인터넷에서 정장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찾아냈습니다. 운 좋게도 공유 씨 치수에 딱 맞는 정장이 하나 있습니다. 공유 씨는 미팅 장소로 가는 길에 정장을 받기로 했습니다.



13 : 00

“미팅을 어디서 하지?”

협력사 근처에서 어려운히 알아서 만나라는 부장님! 공유 씨는 원하는 지역에 있는 빈 스테디룸이나 미팅장소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덕분에 협력사가 있는 판교에 미팅룸을 예약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출장은 안심입니다. 게릴라 출장도 공유경제만 활용하면 문제없습니다!

17 : 00

“책 좀 빌려볼까?”

기나긴 미팅이 끝났습니다. 아침에 빌렸던 초록색 스파크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공유 씨, 그런데 기분이 영 찜찜합니다. 미팅 때 협력사 김 팀장이 지나가듯 꺼낸 이야기 때문입니다. “공 팀장님, 크라우드펀딩 몰라요? 요즘 트렌드에 약하시네, 허허.” 알미운 김 팀장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뭐, 트렌드에 약해? 분한 마음에 공유 씨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빨간 신호에 잠깐 정차한 사이, 책 공유 사이트에서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책을 검색해 봅니다. 딱딱딱한 신간 『크라우드펀딩 이야기』가 벌써 공유도서 목록에 올라와 있네요! 잼나게 대여버튼을 클릭하는 공유 씨, 이번 주에 완독하기로 마음먹습니다.



### 한국판 에어비엔비, <비엔비BnB 히어로>

비엔비 히어로는 전국의 숙박 공간을 공유하는 사이트다. 비엔비 히어로를 통해 누구든 남는 방이나 쓰지 않는 공간을 숙박 공간으로 내놓을 수 있다. 비엔비 히어로는 인터넷으로 민박 및 숙박업소를 모으고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유한다. 앞으로 외국에 있는 한국인 민박과 연결하고 지방과 서울 등 한국인 간 네트워크도 만들 계획이다.  
www.bnhero.com

21 : 00

“상큼하게 여행 좀 다녀와 볼까?”

힘든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은 오래전부터 계획한 주말여행이 있는 날입니다. 공유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주말여행을 계획합니다. 공유 사이트를 통해 해운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집이 이번 주말에 비는 것을 확인하고, 민박을 신청합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신선한 회! 벌써 설렙니다. 하지만 공유 씨 사전에 평범한 여행이란 없습니다. 공유 씨는 여행 경험 공유 사이트를 통해 부산 주변의 관광지나 볼거리 정보를 공유 받습니다. 덕분에 여행을 특별하게 만들 정보가 한가득 모였습니다.

### 공유 씨가 공유경제를 통해 오늘 하루 절약한 금액은? 122,620원

구분	소유경제	공유경제	참고
자동차	53,000원	24,480원	○○렌터카, 6시간 대여 쏘카, 6시간 대여
정장	50,000원	20,000원	남성정장 렌탈업체 대여비 열린옷장 남성정장 대여비
회의공간	30,000원	20,000원	일반 스테디센터, 4인실, 3시간 대여기준 코업, 2명, 최소 대여기간 1일 기준
도서	13,000원	5,000원	도서 평균 판매가 국민도서관 책꽂이 왕복 택배비
숙박	80,000원	33,900원	부산 펜션(The Valley) 1박 최소요금 기준 BnBHero, 부산 레지던스형 1박 요금
	226,000원	103,380원	

출처: 크라우드산업연구소 (서울, 공유경제를 만나다) 기념 연구 보고서



### 크라우드산업연구소

다양한 개인이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 비즈니스를 연구·컨설팅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기업들을 통해 살펴본 공유경제」,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2013」 등의 출판과 매월 개최되는 크라우드펀딩스쿨을 통해 크라우드산업업의 정의를 나가고 있다.



# 캐나다,

## 공유 경제와

## 집단적 소비문화의

## 정착



상생을 향한 무한 에너지,  
공유경제

-  
자전거부터  
자동차·농경지까지 공유하는  
트렌드 정착,  
인기 속에 참여 확산



공유경제(Sharing Economy)와 집단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란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1인 소유가 아닌 공동 소유를 통해 서로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경제학'을 바탕으로 한다. 북미는 2008년 금융위기, 2012년 유로존 위기 등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소비자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공유경제 및 집단적 소비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직접적인 구입을 통한 소유보다 비용이 덜 들어가는 렌트 및 대여 등의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캐나다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동산까지 공유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같은 트렌드는 다양한 품목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1. zipcar 웹사이트
2. bixi 웹사이트
3. cowork 웹사이트
4. 메트로 패스카드

출처: KOTRA 글로벌윈도우 www.globalwindow.org

### 보험료, 연료비 걱정을 더는 카셰어링(Car Sharing)

카셰어링은 기존 렌터카와 달리 필요한 시간만큼만 차를 빌릴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기존의 렌터카는 일 단위로 대여해야 하지만, 카셰어링은 30분 단위로 대여가 가능한 'Pay-as-you-go System'으로 필요한 만큼 이용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다. 공휴일, 주말, 퇴근 후 야간시간대 등 차가 필요한 상황에 언제든지 차를 사용할 수 있어 대도시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런 편리성 외에도 카셰어링은 자동차 구입에 드는 비용, 차 보험료, 연료비 등을 절약할 수 있다. 현재 캐나다에는 경제적인 카셰어링이 부각돼, 사용률이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Zipcar, Autoshare, Car2go 등 3사가 운영 중이다.

### 공용 자전거 시스템 '빅시(Bixi)'

캐나다에서는 지구온난화 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자전거 사용을 높이기 위해 '빅시(Bixi)'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빅시는 바이크(Bike)와 택시(Taxi)의 합성어로 자전거를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09년부터 몬트리올과 토론토에서 운영 중인 빅시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선보인 공용 자전거 시스템이다. 캐나다 정부는 자전거 수를 5,000대로 확대하고, 자전거 정류장도 300곳에서 400곳으로 증대시킬 예정이다. 현재 연간 약 4만 8000명이 빅시 자전거를 사용하며, 토론토·몬트리올 등 캐나다 대도시에는 곳곳에 무인 대여소가 설치돼 있다. 빅시는 신용카드로 간단히 대여할 수 있으며, 이용 후 어느 대여소에나 반납할 수 있다. 2011년 5월 시작된 토론토의 빅시 프로그램은 2013년 현재 자전거 대여 횟수 27만 8300여 회, 장기 회원가입자 수 역시 3,000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트렌드는 보스턴·워싱턴DC 등지로 확산되고 있으며, 자전거 세어링을 통한 대도시의 도심체증 완화 노력은 앞으로도 북미 전역에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오피스 세어링(사무공간 공유)

2012년 캐나다 도시연구소(Canadian Urban Institute)가 발간한 「광역토론토 사무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콘도 건설 활황의 영향으로 도심에 새 사무용 건물을 지을 용지가 400만㎡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캐나다는 기존의 딱딱하고 일상적인 사무 공간이 아닌 높은 천장과 함께 밝은 이미지로 개보수를 거친 사무 공간을 24시간 동안 제공하는 오피스 세어링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사무실 공간 세어링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Co-Work Bloor on Bloor'는 한 달에 325달러를 내면 미팅 공간과 컴퓨터, 프린터, 인터넷, 커피 등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어 많은 이용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메트로패스

TTC(Toronto Transit Commission, 토론토 시 교통국)가 운영하는 버스·전철·전차(Streetcar)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265만 명으로, 뉴욕 MTA와 멕시코시티 지하철에 이어 북미에서 세 번째로 많다. TTC는 교통체증 감소 및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TTC에서 운영하는 버스·전철·전차를 한 달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메트로패스(Metropass)를 2005년부터는 이용객끼리 수시 양도가 가능할 수 있게 변경했다. 즉, 메트로패스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게 규정을 바꾼 것이다. 토론토 시민은 평균 월 95.75~128.50달러를 메트로패스 구입에 쓰는데, 연간 구입비용의 15.26%를 세금 공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세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sup>WT</sup>



# 쉬운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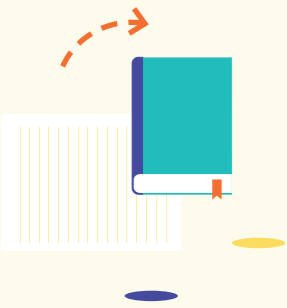
# 똑똑 도서관 자가증식에서 찾다



아파트 도서관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우리 단지에 도서관이 필요하다. > 건물을 짓거나 장소를 마련한다(돈이 많이 든다). > 책은 기부 받는다(대부분 자기가 안 읽거나 낡은 책을 기부한다). > 자기가 안 읽는 책을 기부했으므로 그 도서관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진다. > 도서관을 찾는 사람이 없다 > 도서관에 난방을 하는 것도 아까워진다. > 사서(대부분 자원봉사자)도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춥고 외로우니깐). > 죽은 도서관이 된다. > 피 같은 돈만 낭비했다.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필요하다. > 건물을 짓거나 장소를 마련하지 않는다. > 각 집이 도서관이 된다. > 집 한편에 선반이든 앉은뱅이 의자든 두고 그 위에 나누고 싶은 책을 올려놓는다. > 자기 도서관 도서목록을 정리하고, 방문해도 되는 시간을 적어 인터넷에 올린다. > 인터넷 도서목록을 보고 방문 시간에 맞춰 집 문을 똑똑 두드린다. >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도서관은 죽지 않는다(그 와중에 살 수도 있다!). > 피 같이 끈적한 친분이 이웃 간에 생긴다.



김승수 똑똑도서관 관장은 4년 전 1507가구의 대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선출됐다. 전무후무한 젊은 입주자 대표였고, 주민컨퍼런스를 열고 TV를 통해 입주자 대표회의를 방영하는 열린 대표였다. 그런 그에게 아파트 도서관에 대한 과제가 떨어졌을 때, 그는 과감하게 '공유'를 통한 스마트한 도서관을 제안했다. 일명 '똑똑 도서관'

"도서관을 만드는 데 건물은 필요 없어요. 어느 집이나 책이 있지만, 한두 번 읽고 나면 장식용이 되지요. 그걸 서로 공유하면 도서관이 되는 겁니다. 두 집만 있어도 도서관이 성립돼요. 한 집에 책이 30권만 있으면, 보통사람의 2년 치 도서목록이 되거든요. 최고 장점은 끝나면 끝나는 거고, 시작하면 시작하는 거지 망하거나 잘 된다거나 하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이 있는 한 도서관은 계속 있는 거죠."

김승수 관장의 집(똑똑도서관 1호점)은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책이 발에 채인다(!?). 현관 옆 앉은뱅이 의자 위에 '002★'라는 독립출판된 책이 놓여있고, 고개를 들어 왼쪽을 보면 조금 더 은근한 공간에 미하엘 엔데의 '모모'가 놓여있다. 그 아래에는 '철들고 그림 그리다'란 책이 성당이 드로잉된 그림 한 점과 함께 단아하게 놓여있다. 앉은뱅이 의자 위에 놓인 책은 보기 드문 책이라 김승수 관장이 소개하고 싶은 책들이고, 그림과 함께 놓인 책은 김 관장이 요즘 취미를 가지고 열중하고 있는 드로잉 관련 책이다. 대형 도서관이 아니기에 사서 개인의 주관이나 취향 혹은 소기의 목적으로 선별된 책들을 드러내놓고 소개한다. 이 또한 장점이다. 김 관장네 아파트 단지에는 이런 똑똑한 도서관이 10~15군데가 있다.

### 책을 넘어 문화를 공유하다

똑똑도서관은 김승수 관장의 공적네트워크와 그의 부인 김소희 산림청장(전체 살림을 관장한다는 의미)의 쫄쫄한 인적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똑똑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고 빌려주는 공간이 아니라, 이웃과 안면을 트고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고, 온 김에 차 한 잔 나누는 곳이다. 책과 책의 만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만남인 것이다. 만남은 무수한 가능성이다. 만남을 바탕으로 한 똑똑도서관은 문화도 공유한다. 113동 도서관에는 시시의 냅킨교실이 있고, 114동 도서관에는 뽕이샘의 리본교실이 있다. 115동에는 손만 댔다하면 대장급 요리가 되는 무시무시 요리교실이 있다. '살고 있는 집에서 일어나는 나


눔 교육'의 현장이다. 똑똑도서관은 비싼 돈을 들여 외부에서 강사를 들이지 않는다. 강의를 듣는 사람도 배우고, 강의를 하는 사람도 성장하는 상생의 교육 현장이다.

이런 공유의 과정은 억지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김소희 청장은 말한다. 모든 것은 '재미'에 달려 있다. "문을 열기는 쉬워요. 하지만 마음을 열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하죠.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억지로 열려달라고 하면 힘들 거예요. 저희도 이걸 해보려고 거창하게 계획을 짜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하다 보니 저절로 된 거지요. 사람들은 다들 만나고 나누고픈 욕구가 커요. 방법을 모르는 거지요."

책을 나누고 솜씨를 나누는 일은 계속 발전중이다. 적지만 수익이 생기면서 구성원들의 자신감이 커졌고, 오프라인 공간과 책 출판을 계획하게 되었다. 원칙은 하나다. 모든 것은 네트워크와 공유를 통한 배움으로, 구성원의 성장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 이런 똑똑도서관은 인천과 경기도 고양시, 서울 서교동 등에도 시도되고 있다.

김승수 관장 역시 성장했다. 대학에서 지역사회복지학을 가르치는 그는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라고 가르쳤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의 지역에서 이방인일 뿐이었다. 그 부조리를 벗어나고자 스스로에게 과제를 던졌다. 그 첫 번째가 입주자 대표가 되어 지역에 스며드는 것이었다. 현재 그는 베테랑으로 일컬어지는 허허벌판 고층아파트 사이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공유를 일처럼 느끼면 안 될 거 같아요. 경험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어떻게 이뤄진다고 카테고리를 가지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 같아요. 책을 나누다 보니 DVD도 나누게 되는 거고, 옆집에 공동 공유하게 되는 거지요. 자발적인 공유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관심에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자기 마음을 여는 순간 만들어 지는 거지요. '똑똑'은 머리와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일상적이고 소소한 것들, 그 속에서 무엇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도 '책'이다. 책처럼 사람도 공유가 가능하다. 물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나눌 수 있고,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하는 세심한 결이 필요하다고 김 관장은 말한다. 쉬운 공유를 찾기 위해 문을 두드린 곳에서, 예뻐가지만 가장 확실한 공유의 길을 찾았다. 자,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마음을 열어보자. 공유는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 전통시장 협동조합 함께 만들기 프로젝트

글  
최혜진 정책연구원



골목길에 작은 상점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전통시장에 들러본 추억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다양한 상품과 먹거리에 눈과 입이 즐거워지고, 물건을 사고파는 손님과 상인 간에 누리와 덤을 향한 실랑이 소리가 가득한, 희로애락 속에 사는 우리 삶의 모습이 녹아 있어 사람 사는 구수한 냄새가 나는, 우리 기억 속의 전통시장은 그런 곳이 아닐까 싶다. 이처럼 전통시장은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자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시장이 최근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형할인마트, SSM 등 유통업체의 진출과 시장참여가 자유로워지고, 소비자들의 소비성향 변화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전통시장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 재래시장 이용 모습
2. 동원시장 협동조합 함께만들기 교육 현장



## 전통시장에 있어 협동조합의 의미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운영모형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사업을 기획하였고, 함께일하는재단(이하 재단)은 2013년 11월부터 이 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동참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협동조합’, 언뜻 보면 생소한 결합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전통시장에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왜 필요하며,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국내 전통시장의 상인조직은 기존 등록상인회(51%)와 임의단체(23.9%)가 대부분이며, 시장 내에 상인조직이 전혀 없는 경우(12%)도 적지 않다. 「전통시장 협동조합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시장경영진흥원, 2012). 이러한 상인조직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수익모델 개발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전통시장의 발전을 이끌어내기에 다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통시장의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보다 강한 인적 결합을 통한 사업을 수행해내는 협동조합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 전통시장 상인이 대부분인 전통시장에서 유통, 마케팅 등에서 공동의 욕구와 필요를 공동사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개인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에 협동조합이 잘 정착되어 운영된다면, 구성원 간의 협동을 통해 수익이 창출되고 복지 개선이 이루어지며, 지역 커뮤니티가 회복되는 등 전통시장과 지역사회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 동원골목시장, 협동조합을 꿈꾸다

지난해 11월 공모를 통해 재단과 함께 협동조합 설립에 나선 전통시장은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동원골목시장이다. 동원골목시장은 2005년 8월에 등록된 인정시장으로 노점을 포함해 전체 130개의 점포가 있으며, 동원골목시장상인회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 동원골목시장 상인회 이장배 회장을 비롯한 상인회 이사진들은 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하다. 재단과 동원골목시장은 몇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조합원의 욕구 충족 및 복지 향상과 동원전통시장의 활성화

를 위해 지속적 운영이 가능한 협동조합 설립’이라는 비전을 세웠고, 이를 위해 각종 교육 및 워크숍 등 교육·홍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상인들이 협동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간담회, 설문조사(상인 및 고객 대상), 자원조사 등을 통해 공동의 필요가 담긴 사업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동원골목시장 협동조합 설립지원을 위한 교육은 시장 전체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협동조합설립에 관심이 있는 상인 5~6명으로 구성된 리더모임 등으로 나눠 각각 매주 1회 진행하고 있다. 전체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명칭은 ‘밤상모임’이다. 고객이 많은 오후와 저녁시간에 가게를 비우기가 어려운 상인들을 고려해 점심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주로 협동조합을 처음 접하는 상인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협동조합의 이해를 높이는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시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모임들과 협동조합 설립 과정을 홍보하고 안내하기 위해 ‘동원전통시장 협동조합 함께 만들기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다.

시장 내에 130개의 점포가 있다는 것은 업종과 운영방식이 각기 다른 130명의 사장이 있다는 이야기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참여와 의견 일치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시장 내 상인 간 협동을 통해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열망하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과정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관의 제정 및 (수익)사업 개발을 위한 논의들이 심도 깊게 진행되었으며, 임시총회를 통해 비법인 형태의 현재 상인회 조직을 협동조합 법인격을 가진 형태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가결되어,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다.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협동’으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동원골목시장, 이러한 염원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상인들의 삶이 더욱 풍요롭게 변화하기를 진심으로 기대 본다. <sup>WT</sup>



# 한전의 '전력을' 다하는

## 사회공헌 활동



글  
이은주 홍보팀

산간지방에 큰 눈이 내려 고립됐거나, 푸른 바다에 기름이 유출됐거나, 명절에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주결혼여성들의 사연을 접할 때, 여지없이 보게 되는 이름이 있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봉사단'

한전 봉사단은 큰 눈이 내려 막힌 길을 뚫고, 기름을 닦고, 이주결혼여성들에게 고향 가는 항공권을 선물한다. 수많은 한전의 사회공헌 활동 중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기는 힘들지만 '한전 사회봉사단'으로 키워드를 잡는다면 설명은 쉬워진다. 2004년 출범한 한전 사회봉사단은 291개 조직으로 나뉘 전국 지역아동센터, 독거노인 전기설비 개·보수, 전력설비 인근 지역 봉사 등 도움이 필요한 이슈들에 '전력을' 다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전은 2013년도 '한국 기업 국가 사회 공헌도(일반인 부문) 평가(조선일보, 기업공헌평가원 실시)' 결과 공기업으로는 유일하게 10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전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포부 넓게도 그 꿈을 국내에만 가두지 않는다. '인류와 사회의 행복에 기여하는 글로벌 사회공헌 리더'를 꿈꾸는 그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여다본다.



1. 한전 기부장터\_협동조합온리
2. 한전 기부장터\_이물약초협동조합
3. 협동조합 아이디어캠프

### 기업문화가 곧 봉사문화

방 안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려면 우리는 스위치만 누르면 되지만, 사실 전선을 설치하고, 잇는 지난한 '손작업'이 필요하다. 전국 구석구석 불이 들어오는 요즘, 그를 위해 활동해 온 한전이 전국 사업소에 대대적인 사회봉사단을 설립해 활동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방문한 집집마다 사람이 있고, 외면하기 힘든 사연이 있었을 테니 말이다.

한전은 2003년부터 시작한 저소득층 전기요금지원 '사랑의 에너지 나눔사업'을 통해 2012년까지 1만 4,110가구에 18억 3,700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재능기부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매달 발행하는 전기요금 청구서와 사외보에 미아 사진과 연락처를 게재하는 '미아찾기 캠페인'도 1993년부터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109명의 아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최근에는 시각장애인의 개인 수술비를 지원하는 '아이 러브(Eye Love) 1004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2010년에는 공기업 최초로 전문적 재난구조단을 창단해 재해지역에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한전에서는 승진자들이 '승진덕'을 내는 대신 봉사를 통해 승진의 기쁨을 전한다고 한다. 한전의 기업문화는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봉사문화인 셈이다.

###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공헌 범위를 넓혀

한전이 함께일하는재단(이하 재단)과 손잡으며 공헌의 방향과 범위를 바꾸고 있다. 봉사와 기부를 통한 직접적인 공헌활동에 주력해오던 기존 방식을 넘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헌활동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이다. 한전은 2012년 재단과 함께한 '행복충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 분야 사회적기업 4곳을 대상으로 신사업 개발과 시설투자 등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에너지 스쿨과 캠프 개최, 에너지 절약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한전과 사업 연관성이 높은 국내 최초 에너지 분야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2013년에는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사업'을 재단과 체결하고 9개소 협동조합에 교육, 컨설팅,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협동조합 성공 사례를 발굴하였다. 이 사업은 정부 정책을 통해서도 이뤄지지 않던 '사업비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협동조합 종합지원사업'을 하는 최초의 민간부문 사업장으로 자리매김하며,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올해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가세해 민·관·NPO가 협력하는 최초의 협동조합 종합지원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14년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동조합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정책포럼을 기획 중이며, 협동조합 생산물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 마케팅과 유통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한전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13년 재단과 함께 진행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KEPCO 희망카페 설립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10월, 1호점인 빈자리(Been Zari) 카페가 서울시 영등포구에 문을 열었다. 이를 통해 이주여성 한 명과 위기 청소년 한 명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은 사회 어디에나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사회 곳곳을 밝히던 한전의 직접적인 사회공헌활동이 재단과의 만남을 통해 미래의 등불을 밝히는 활동으로 변화·발전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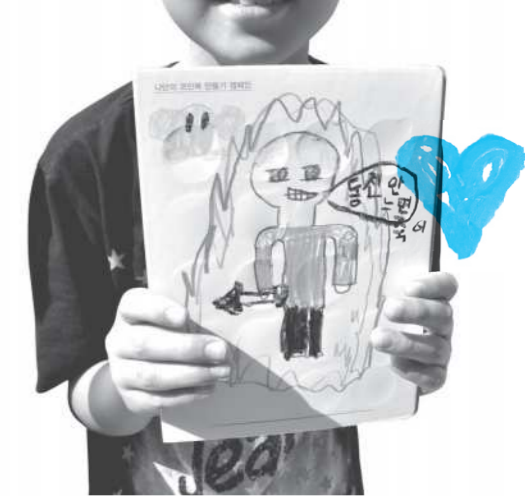
재밋게

한  
낚ış, 낚ış,

2만 원의  
행복



글  
장인후 기부자관리팀



1-2. 나만의 코인북 만들기 캠페인 기부북 활용 모습

지난 1년간 코인북캠페인을 마무리하며 2014년 새해에는 캠페인명을 기부책캠페인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사람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나눔은 기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기부책을 통해 나눔의 목표를 세우고, 기부를 실천하고 변화를 만들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나눔과 기부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오늘날 많은 사람 속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함께 일하는재단(이하 재단)과 함께 많은 시민이 코인북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코인북이란 펼치면 40개의 동전을 꽂을 수 있는 기부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입니다. 저금통에 동전을 넣듯 꾸준히 500원을 꽂으면 2만 원이 됩니다. 어찌 보면 적은 돈일 수 있지만, 단순히 기부금을 기부하는 것에서 벗어나 나눔에 대해 생각하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나눔을 기부책을 통해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기부책을 꾸미는 모든 분이 기부책의 빈자리를 하나씩 채워나가며 나눔의 목표를 스스로 완성해 나가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스크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기부라는 단어를 자주 접합니다. 기부는 나눔의 실천적인 행위입니다. 많은 기부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들을 돕기 위해 나눔을 실천합니다. 기부는 다양한 변화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기부책은 이러한 기부자들이 나눔에 보다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부책 꾸미기를 통해 나눔의 목표를 세우고 기부책에 하나씩, 하나씩 동전을 채워나가며 나눔의 목표에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는 도구가 되어 줍니다. 어느덧 기부책을 가득 채운 동전은 각각의 나눔 목표에 따라 소중한게 기부되며 다양한 변화들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재단이 이러한 기부책을 만들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나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기부책을 모두 채우게 되면 2만 원의 기부금을 모으게 됩니다. 누구에게는 큰 금액이, 누구에게는 평범한 금액이 어떤 이에게는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나눔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나눔 활동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기부책을 통해 즐겁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2014년 재단은 기부책캠페인과 더불어 국내빈곤아동청소년을 돕기 위한 라이트어래프(light a lamp)사업의 모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기부책이 나눔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어 보다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

기부책 신청 및 나만의 기부책 공유하기

기부책 만드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 기부책 신청하기, 기부책 공유하기 등 캠페인의 모든 것들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givingbook](http://www.facebook.com/givingbook)

기부안내 및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함께일하는재단 기부자관리팀 02-330-0742~4



# 이로운 먹거리로

# 이로운 세상을

## 일구는 이들

취재 글  
윤영주 홍보팀

사회적기업이라는 황무지에서 희망을 만드는 기업가들은 그들이 원하던 그렇지 않은 이미 한 배를 탄 동료이자, 운명 공동체다.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에 함께 고생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사회적기업가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동고동락'에서 담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두 여성기업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언니네텃밭 윤정원 사무장과 (주)슬로비생활 한영미 대표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한영미** 윤정원 사무장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희가 함께 일하는재단 덕분에 맺어진 인연인데, 재단 덕분에 또 보게 되네요.(웃음) 제작년에 '한화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처음 만나게 됐잖아요. 그때는 종종 만날 기회가 있어서 안부도 묻고 사업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지원사업 끝나니까 일도 바쁘고 일부러 만나기가 쉽지 않네요.

**윤정원** 맞아요. 아무래도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니 자연스레 더 관심이 가고 빨리 친해진 것 같아요. '카페슬로비'는 제주, 성북까지 지점을 확장해 가고 있는데, 대표님의 수완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장부 같은 면모가 있다고 할까.

**한영미** 주변에서 도움도 많이 받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제주슬로비 준비할 때 언니네텃밭에 부탁드려서 지인을 소개받았잖아요. 그때 영향력 있는 '언니들'을 소개해주셔서 장소 선정부터 지역 네트워크 형성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토종씨앗도 선물로 주셔서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어렵더라고요.(웃음)

**윤정원** 제주슬로비는 서울과 어떤 점이 달라요?

**한영미** 지역 특색을 살린 메뉴가 있어요. 제주슬로비가 있는 애월읍이 취나물의 주산지예요. 전국에서 생산되는 취나물의 25%가량이 애월읍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현지의 특성이 살아있는 취나물로 브랜딩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취나물을 장아찌로 담가서 비빔밥을 만들었어요. '애월비빔밥'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맛도 담백하고 향이 좋아서 인기가 많아요. 지금은 제주슬로비의 대표 메뉴예요. '제주돌빵'은 현우암을 연상시키는 까만 빵이에요. 지역의 대표성을 식재료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표현해 낼 방법을 고민했어요.

**윤정원** 뭐로 만들어서 색깔이 검정이에요?

**한영미** 비밀이에요.(웃음) 메뉴 개발은 모든 구성원이 함께 모여 고민해요. 저도 제한하지만 업장에 있는 스태프의 의견을 존중해요. 3월에 제주슬로비에서 신메뉴를 선보이는데, 제주 돼지로 만들었어요. 실은

성북에서 개발한 메뉴인데, 반응이 좋아서 제주화 시켜보자고 했죠. 제주 돼지가 맛이 좋으니까. 각자 개발한 메뉴를 공유하고, 그 지역에 맞게 조금씩 변화시켜요. 인기 있는 메뉴들은 순환시키고요. 홍대에서 판매되는 '그때 그 커리'는 제주슬로비에서는 '홍대커리'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성북슬로비에서 '애월비빔밥'이 판매되고 있어요.

**윤정원** 성북구, 제주시에 지점을 낸 이유가 있어요?

**한영미** 요즘 청소년은 가정이 해체된 경우가 많아요. 영세프 중에도 상당수가 정서적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우리 세대는 형제자매, 할머니가 계신 시골집이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유년시절의 푸근한 기억들이 살아가면서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하는데, 아이들에게도 그런 역할을 하는 시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시골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 배운 것을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을 경험해 보는 거죠. 영세프들은 요리를 하니까 지역의 로컬푸드를 만드는 일도 해보고, 요리를 가르치고 배우면서 관계 맺는 법을 배워요. 자연과 가까우면서 학교가 있고 마을 어른들이 환대를 해주시는 곳이었으면 했는데, 애월읍이 눈에 들어왔어요. 영세프 2명이 제주슬로비를 꾸려가고 있는데, 일 년이 채 안 되었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태권도를 배우고, 해녀학교에도 다닐 거라고 해요.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새로운 꿈이 생기고 삶의 활력을 이루는 과정이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추억이 생기고, 그 추억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 성북슬로비는 사회와 학교에 발붙이기 힘든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게 됐어요. 매해 7만~8만 명의 아

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는데, 탈학교 비율이 서울시, 그중에서도 성북구에 많아요. 성북슬로비가 지역의 청소년과 만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는 거죠. 직업체험도 할 수 있고, 창구를 통해 영세프 스쿨로 유입될 수도 있고.

**윤정원** 농업 활동이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이 커요. 영세프 중에 농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언니네텃밭 생산자와 연계해 줄 수 있어요. 텃밭농사이다 보니 자급에 필요한 모든 걸 농사짓고 있는데, 생산자 10명 정도가 한 해에 백 가지 이상의 농산물을 생산해요. 그걸 한 마을에서 모두 볼 수 있죠.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도 마련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한영미** 서로 바빠서 연락도 자주 못하고 지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되네요.

**윤정원** 그러네요.(웃음) 저는 한 대표님과 얘기하면서 여러 면에서 많이 놀라게 돼요. 요리와 청소년 문제를 연결할 생각을 하신 것도 대단하고, 농사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실행하시는 것도 놀랍고, 식자재를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지 않고 재래시장을 통해 직접 구입한 것도 그렇고, 농사짓고 여성농민회만 알다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여러 기업을 만나게 됐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많아요.

**한영미** 언니네텃밭도 '제철꾸러미'라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해내셨잖아요. 슬로비에서도 언니네텃밭의 식재료를 메뉴화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기도 하고 많이 알려주고 싶은데, 꾸러미는 개인과의 거래

윤정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언니네텃밭 사무장



한영미  
(주)슬로비생활  
대표







가 중심이어서 저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웠어요.

**윤정원** 언니네텃밭 제철꾸러미는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꾸러미예요. 2007년부터 준비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들에게는 2009년에 처음 선보였어요. 이전에도 5~10월 사이에 채소만을 공급하는 채소박스나, 벼가 수확되면 쌀을 보내드리는 경우는 있었어요. 언니네텃밭 제철꾸러미는 단일 작물을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부, 유정란을 기본 품목으로 해서 매주 다른 제철 채소들로 구성했다는 점이 달라요.

**한영미** 요즘은 다른 곳에서도 꾸러미 형태를 많이 내놓고 있죠?

**윤정원** 다른 꾸러미는 전국에서 올라온 생산품들이 물류센터에 모였다가 포장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배달돼요. 언니네텃밭은 공동체 마을에서 생산, 포장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살리자는 꾸러미의 본래 취지가 살아있어요. 이런 부분을 인정받아서 지난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직거래 콘테스트'에서 꾸러미 분야 최우수 사업자로 선정됐어요.

**한영미** 우와, 축하드려요. 5년 정도 지나니까 그동안의 노력이 성과로 드러나기도 하고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꾸러미가 생긴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윤정원** 언니네텃밭, 생산자, 소비자 입장에서 변화가 생겼어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25년 된 조직인데, 언니네텃밭 제철 꾸러미를 통해 대중들에게도 이름을 알리게 됐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공감도 많이 얻게 되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언니네텃밭은 여성 농민에게 생산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여성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도 남성 이름으로 출하되기 때문에 내 소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가 생겼죠. 방송이나 신문에 언니네텃밭 꾸러미가 노출되면서 문의가 정말 많았어요.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컸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소비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후기를 남기기도 하는데, 한 젊은 부부가 둘 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꾸러미를 받은 이후부터 감기도 잘 걸리지 않고 병원 가는 횟수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걸 보내줘서 고맙다고 남기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생산자들은 농사짓는 보람을 느껴요. '내가 돈 벌려고 농사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구나' 하고요. 50년간 농사지었는데 이렇게 재밌고 행복한 적은 처음이라는 생산자도 있었어요.

**한영미** 농민들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감동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윤정원** 맞아요. 슬로비도 그렇지만, 언니네텃밭도 먹거리를 통해 관계를 잘 형성하는 데 의미가 있잖아요. 제철꾸러미는 생산자가 보내주는 품목을 소비자가 받는 형태지만, 원하는 품목이 있으면 생산자에게 건의할 수 있어요.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은 다음 해 농사 계획에 포함시켜서 소비자 요구를 맞추려고 해요.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1인 꾸러미'를 만들었어요. 기존의 제철꾸러미는 매주 발송되었는데, 1인 꾸러미는 1달에 2회 발송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해요. 앞으로 꾸러미 공동체도 꾸준히 늘러가고, 공동체로 모이기 어려운 여성농민의 제품은 언니네텃밭 홈페이지의 언니네 장터(www.sistersgarden.org)를 통해 판매할 계획이에요. 소비자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소개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야죠.

**한영미** 저희는 지난해에 사업자를 하나 더 내서 오가니제이션 요리, (주)슬로비생활 두 개로 분리해서 역할을 나눴어요. 오가니제이션

요리는 영세프 같은 교육 사업에 좀 더 치중하고, 슬로비생활은 매장 확산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오가니제이션 요리가 인재를 양성하고, 슬로비생활은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현장을 제공하는 거죠. 슬로비생활의 수익 일부를 교육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해요. 슬로비를 운영하면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외식업자, 농부, 소비자의 입장에서 써서 총 3권짜리 책을 내보려고요. 1권은 외식업자의 입장에서 쓰는 '밥을 파는 즐거움'이에요. 인큐베이팅 하면서부터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담고 싶어요. 카페슬로비 단골손님 중에 인디밴드 멤버가 있는데, 여기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엄마 밥 줘!', 밥을 다 먹고 나면 '아, 살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영세프를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싶고, 어떤 사람의 변화를 지켜볼 수 있고, 관계들이 모여서 새로운 것들도 만들어 내는 걸 지켜보면서 밥을 파는 사람으로서 즐거운 거죠. 2권은 농부의 입장에서 '농사짓는 즐거움'에 대해 써보고 싶어요. 이젠 언니네텃밭의 도움이 필요해요. 수확하는 기쁨, 농사의 중요성,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살아 있는 이야기들과 소박하지만 농가에서 즐겨 먹는 요리의 레시피까지 소개하고 싶어요. 3권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함께 먹는 즐거움'에 대해 쓰고 싶어요. 카페슬로비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오라잇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소통하는 자리예요. 3년째 해오고 있는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묶어내려고 해요.

**윤정원** 특히 두 번째 책은 같이 작업해보면 좋겠네요. 언니네텃밭 생산자들은 제철꾸러미를 보낼 때 편지를 써요. 저희도 그 편지를 묶은 책을 발간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구상을 잘 해봐야겠어요. 언니들 중에 최고령 생산자가 70세가 넘었는데 우리와 이메일을 주고받아요. 꾸러미 사업을 하면서 컴퓨터와 팩스 사용법도 배우고 영어를 배우는 언니들도 있고.


**한영미** 책 제목을 '언니들의 힘'으로 하면 어때요?(웃음)

**윤정원** 적어 놔야겠어요.(웃음) 저는 운이 좋고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한 대표님도 그렇고, 함께일하는재단 담당자들도 그렇고, 멘토링 해주신 윤봉규 교수님, 정상훈 센터장님, 생산자 언니들까지, 좋은 분들 만나서 함께 꿈꿀 수 있다는 게 행운이죠.

**한영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원사업 신청할 때는 네트워킹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하려는 사업을 위해 신청했는데, 좋은 인연도 맺게 되고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지원사업 멘토링을 통해 로드맵을 선명하게 그릴 수 있었고, 한 발 더 나갈 수 있었어요. 특히 언니네텃밭은 같은 여성이다 보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의지도 되고 많이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협업도 생겨나고, 올해 '에코샵'(카페슬로비 한쪽에 친환경 및 공정무역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코너)을 개편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카페슬로비가 음식을 파는 곳이니까 식재료를 판매하면 어떨까 하는데, 언니네텃밭과 머리를 맞대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요?

**윤정원** 채소는 금방 시들어버리니까 힘들 것 같고, 언니네텃밭에서 생산하는 토종잡곡을 소개하면 어떨까요. 오래 보존이 되니까. 아까 한 대표님께 드린 게 흥천에서 무농약으로 재배한 토종 차조예요. 토종씨앗으로 재배한 거라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한영미** 그럼 곡류부터 합시다! 저희가 월요일마다 '그때그때 밥상'을 채식 식단으로 꾸미고 있는데, 가져다주신 조로 밥을 해서 밥상에 내야겠어요.

**윤정원** 이렇게 또 협업이 이루어지네요.(웃음) 





# 무대를 즐길 줄 아는

# 진정한 챔피언

취재 글  
윤영주 홍보팀



TV도 인터넷도 없던 시절, 동네에 들어선 천막 공연장은 그야말로 신세계였다. 1925년 국내 곡예단 1호로 창단된 이래 배삼룡, 이주일, 허장강, 장항선, 서영춘 등 당대 최고의 스타를 배출해내며 높은 인기를 누렸던 동춘서커스가 올해로 창단 89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저글링 챔피언 박광환 씨를 만났다.



## 곡예사가 되기 위해 태어난 사나이

저글링(juggling)이라는 단어는 묘기를 부리면서 흥을 돋운다는 뜻의 중세 영어 jogelen, 익살을 뜻하는 라틴어 joculari를 어원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경쾌하고 빠른 리듬감을 가진 저글링을 선보이는 저글링 박, 박광환 씨의 얼굴에는 소년 같은 순수함과 익살스러운 표정이 살아있다. 노란색으로 물들인 풍지머리에 선글라스를 쓴 모습부터 예사롭지 않다.

“김병지 선수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헤어스타일은 제가 원조예요. 염색도 이발도 직접 해요. 튀는 헤어스타일 덕분에 밖에서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인생은 서커스와 함께 시작되었다. 곡예사인 양부모님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커스를 접하며 자랐고, 7살 때부터 서커스를 시작해 13살에 무대 데뷔를 했다. 곡예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 공중그네, 줄타기 같은 곡예의 기본기를 익힌 다음에 관심 분야를 정해서 기술을 연마해 나가는 것이다. 서커스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물구나무서기도 2년 이상 연습해야 한다고 하니, 곡예사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밝고 쾌활한 그의 성격과 닮아있는 저글링에 매력을 느꼈고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나간 결과, 현재는 대한민국 최고의 저글링 곡예사가 되었다.

## 희로애락이 함께한 23년의 여정

무대 위의 박광환 씨는 표정과 눈빛이 살아 있었다. 수십 년간 같은 일을 하다 보면 기계적으로 움직일 법도 한데, 신 나는 리듬에 맞춰 관객과 호흡하며 흥겨운 무대를 이끌어 냈다.

“공연을 하면서 내가 즐거워야 한다는 생각이예요. 내가 즐겁지 않으면 관객들도 즐겁지 않거든요.”

서커스를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주저 없이 평생의 인연을 만난 것을 꼽는다.

“아내는 서커스를 보기 위해 관객으로 왔다가 제 무대를 보고 팬이 되었어요. 이후 인연이 발전해서 평생의 반려자가 되었죠. 일찍 결혼해서 아이들이 벌써 고1, 고2가 됐어요. 그렇게 큰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하.”

가족 이야기를 하며 활짝 웃어 보이는 얼굴에 아내와 두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엿보인다. 박광환 씨는 대부도에, 나머지 식구들은 대

구에서 떨어져 생활하는데다 주말이나 명절에도 공연이 계속 있어서 자주 볼 수는 없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와 떨어져 지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운해 했는데, 지금은 아빠 하는 일을 응원하고 누구보다 큰 힘이 되어준다.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연 제의가 온 적도 있었지만 가족과 6년이나 떨어져 지낼 수가 없어서 미국행을 포기했다.

물론 힘든 시간도 있었다. 그가 처음 서커스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인기가 많았고, 서커스단이 7개 정도 있었다. 이후에 볼거리들이 많아지면서 서커스는 인기를 잃어갔다. 공연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관객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무대에 서는 것에 회의의 느낌을 느꼈다. 관객이 많이 찾지 않아 기운이 빠지다 보니 술에 의지한 적도 있었다.

“우리처럼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관객과의 교감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관객의 반응에 힘을 얻기도 하고, 기운이 빠지기도 하죠. 관객의 박수 소리가 박카스보다 효과가 크다니깐요.”

무대를 떠났던 그는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서커스에 대한 애정, 저글링 마스터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동춘서커스 박세환 단장과의 의리 때문이었다.

“함께한 시간이 길다 보니 서로에게 의지하는 부분이 클 수밖에 없죠. 동춘서커스가 힘을 때마다 박세환 단장님의 옆자리를 지켜왔고, 그렇게 함께한 지 벌써 17년이 되었어요.”

## 한국적인 색깔 담긴 서커스 만들고파

동춘서커스는 대부분 중국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박광환 씨는 그 부분을 무척 아쉬워했다.

“중국인의 무대와 한국인의 무대는 정서적으로 많이 다른데, 우리나라 단원들을 양성해서 한국적인 색깔이 담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진정한 한국서커스를 만들고 싶어요.”

곡예를 배우기 위해 찾은 사람들이 더러 있지만 주말에도 공연이 이어지다 보니 한 장소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거나 서커스의 매력을 느끼기도 전에 떠나버린다.

“서커스의 매력은 무궁무진해요. 종목별로 매력이 다 다르거든요. 저글링을 보면 신 나고, 공중묘기를 보고 있으면 우아함이 느껴져요. 관객들과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나누고 싶어요.”

그는 오늘도 서커스의 매력을 전파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며 자신의 무대에 최선을 다한다.





# 자연을 품은

# 사람을 품은 장난감, 품은 장난감

취재 · 글  
이은주 홍보팀



**S#1.** 안녕하세요. 저는 6살 정민이에요(브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장난감 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신상 장난감을 가장 먼저 가지고 노는 자연과사람들 선임 품질검사원(?)이에요(밑에 동생 두 명이 제 뒤를 잇고 있죠). 엄마, 아빠가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제가 별로인 제품은 잘 안 팔려요. 제가 보는 눈이 좀 있거든요. 지금부터 우리 장난감을 소개할게요. 귀 쫑긋하고 잘 따라오셔야 해요~ 고고!

**S#2.** 디자이너 이모와 삼촌이 회의 중이세요. 우리 장난감은 색을 칠하지 않고, 마감처리도 하지 않는 편백나무로 만든 친환경 장난감이예요. 삼촌은 장난감 만들 때 '안전'을 가장 많이 신경 써요. 저처럼 아토피가 있거나 제 동생처럼 입에 넣고 빠는 물건이니 당연한 거겠죠! 물론 모든 장난감이 우리 것처럼 건강하지는 않나 봐요. 삼촌이 이 일을 시작한 계기도 아토피가 있는 제가 중금속 물질이 가득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게 못마땅했기 때문이래요.

**S#3.** 자~ 이제 열정적인 회의가 끝났나 봐요. 삼촌

은 편백나무를 장난감 크기에 맞춰 잘라낼 거예요. 드르르~

**S#4.** CNC기계로 장난감 형태대로 본을 뜨지요.

**S#5.** 그리고 이제 우리 장난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사포질을 한답니다. 음~ 나무 향 좋다. 삼촌은 나무의 향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칠을 안 하는 거래요. 대신 나무의 거칠거칠한 결이 안 올라오도록 사포질이 끝난 장난감을 물에 젖혔다가 다시 사포질을 해요. 이런 과정을 무려 세 번이나 반복한답니다. 장인 정신이 느껴지시나요?

**S#6.** 짜잔~ 공들여 사포질한 결과 비교 컷이예요. 편백나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멋스럽지만, 손때가 묻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장난감 하나를 사포질하는데 2~3시간이 걸리니 얼마나 공들인 작품인지 짐작이 가시죠?

**S#7.** 요즘은 장난감에 휴대폰을 비추면 동영상 이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도 만들고 있어요. 우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룡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네요! 삼촌

자연과사람들 사이트  
www.woodwood.co.kr

은 이걸로 'Kick Starter'라는 소셜펀딩 사이트에 제품을 출시하려 해요. 많은 사람이 우리 장난감의 가치를 알아 주면 좋겠어요.

**S#8.** 아차, 이번에 지적장애인 누나 둘과 함께 일하게 됐어요. 삼촌과 아빠는 예전부터 일하는 장애인 누나, 형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환경을 많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일자리 두 개를 만든 거예요. 현실은 장애인 누나, 형들이 밥값을 제외하고 한 달에 20만 원 받는 일자리가 굉장히 좋은 조건이래요. 너무하죠? 삼촌은 "우리 장난감은 다름은 만큼 부드러워지는 일이나 장애인들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라고 하셨어요. 아빠와 삼촌은 앞으로 20명의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게 꿈이라고 하세요.

**S#9.** 앗, 조용하던 공장 복도가 시끌벅적해졌어요. 오늘은 지역아동센터 형, 누나들이 목공수업을 들으러 오는 날이예요. 삼촌과 아빠는 업무로 바쁘면서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목공수업을 하는 날을 기다려요. 아빠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뭘 하고 싶은 게

없어. 꿈이 있어야 할 나이인데 그렇지 못하대. 그래서 뭘 하든 집중 못하고 항상 산만하지. 대개가 그렇게 어영부영 졸업해서 미용실 시다를 하거나, 중국집 오토바이 배달을 한다고 해. 그러다 사고 나는 애들도 많고. 그게 그 아이들이 그럴 수 있는 미래라니 안타깝지 않나? 그런데 목공수업을 받고 나서 의욕 없던 아이들이 언제 다시 목공수업을 하냐고 선생님께 물었대. 선생님은 애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처음 들어보셨다고 정말 기뻐하셨어."라고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공장에 시끄럽던 형, 누나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 나무 자르는 소리만 가득했었어요. 입 가득 바람을 넣어 후후~ 툼뼉을 불어 가며, 눈 한번 깜짝이지 않고 집중하네요. 누나, 형들 손에 탄생할 휴지 케이스가 아주 멋진 것 같은 예감!

우리 장난감이 장애인 누나들과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희망을 준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 편이 아릿해져요. 마음을 더한다면 친환경 장난감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군요. 우리 장난감을 산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난감 좀 멋지지 않나요? **W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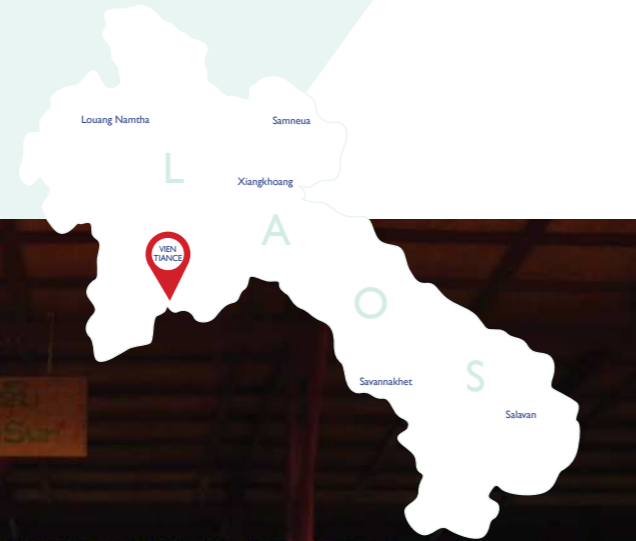




# 라오스의 행복한 카페

## 줌썬 이야기

글  
이소담 자원활동가



1. 카페 줌썬 벽화 꾸미는 모습
2. 푸딩맹청소년센터에서 주도한 위양쌔마이 마을 mud house 프로젝트 작업 모습

### 미지근했던 아이스크림

2013년 4월 카페 줌썬(Café ZoomSun)이 있는 방비엥의 푸딩맹청소년센터(Phoudindaeng Youth Center, PYC)를 처음 방문했다. 센터직원 캄손(Khamsone)에게 센터에 대한 소개를 받고 카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다. 아이스크림은 만들기가 쉬워 웬만하면 다 맛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웬걸, 얼음이 적게 들어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것이 맛도 싱거운 애매모호한 커피가 나왔다.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 결국은 내가 직접 만들어 먹었다. 이것이 카페 줌썬과의 첫 만남이다. 그리고 9개월 뒤, 이번에는 푸딩맹청소년센터에서 2달간 자원활동을 하게 되어 카페를 다시 방문했다. 카페의 걸모습은 그대로였고 커피는 여전히 맛이 없을 것 같았다. 시험 삼아 몇 가지 커피를 다양하게 주문해서 먹어보니 꽤 맛있었다. 샌드위치, 핫케이크와 같은 디저트, 다양한 음료들을 만들어 봤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었다. 그동안 카페 직원 깨오(Keo)가 카페를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해왔는지 알 수 있다. 하루 이를 지켜보니,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던 깨오가 어느덧 외국인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영어 실력이 늘어 있었다. 무엇보다 외국인을 대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게 신기했다. 이것이 내가 카페 줌썬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방비엥의, 지역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푸딩맹청소년센터는 방비엥(Vangvieng) 시내에서 차로 약 10분 정도 떨어진 푸딩맹마을 안에 있다. 방비엥은 수도인 비엔티안(Vientiane)에서 북쪽으로 150Km, 차로 약 3~4시간 떨어져 있다. 특별한 역사 유적은 없지만 튜빙, 카약킹 등 다양한 놀이로 유명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푸딩맹청소년센터는 항상 아이들로 붐빈다. 영어나 컴퓨터를 배우러 오는 청소년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아이들, 아니면 그냥 놀러 오는 아이들도 있다. 센터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공간이면서 놀이터이기도 하다. 푸딩맹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에서도 많이 찾아온다. 이곳에 오면 많은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혹 먼 마을에서도 영어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데 몇 달을 이곳에서 배우고 돌아가면 그 마을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실력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한번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스쿨버스를 따라나선 적이 있다. 스쿨버스는 위양쌔마이(Viangsamai) 마을과 나케(Nakhe)마을 중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다. 학생 대부분은 자전거가 없어 학교에 가려면 1~3시간가량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스쿨버스 덕분에 학교에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 나케마을은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가야 나오는 마을이다. 이런 곳에도 마을이 있나 싶을 정도로 깊은 곳에 있는데 스쿨버스가 없으면 모두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학교에 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번은 나케마을에서 나오는 길에,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차를 세우더니 2만 킵(약 2,500원)을 운전기사인 캄디(Khamdee)에게 주었다. 이유를 물어보







니 아들이 학교에 걸어가고 있는데 혹시 만나게 되면 간식 사 먹을 돈을 전해달라는 거였다. 조금 가다 보니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걸어가고 있었다. 캄디는 아저씨가 준 용돈을 아이에게 전해주고 학교 까지 태워주었다. 이렇게 스쿨버스는 아이들에 대한 부모님의 마음도 함께 싣고 간다.

**모두의 사랑방, 카페 증편**

카페 증편은 푸틴당청소년센터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깨오가 카페를 지키고 그 옆에 수공예 작품을 만드는 언니, 동생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학교가 끝날 시간이면 전통춤을 배우는 학생들이 카페 근처로 모인다. 매일 보는데도 무슨 할 얘기가 그리 많는지 30분은 수다로 때운다. 라오스에는 크게 세 개의 민족이 있는데, 카페에는 모두가 모인다. 깨오는 크무(Khmu)족이고 수공예 직원들은 몽(Hmong)족이다. 자기가 일하는 도서관보다 카페에 더 자주 놀러 오는 센터 직원 시몬(Simone)은 라오름(Lao lum)족이고, 전통춤을 배우는 학생들은 각 민족별로 8명씩 있다. 원래 라오스에서는 민족 간의 갈등이 조금 있는데, 이곳에선 별문제 없어 보인다. 카페 이름 증편은 라오어 쏘손에서 가져왔다. 쏘손은 '지역사회'란 뜻.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어울려 사는 곳을 만들려는 바람을 담았다.

지역 청년이 일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이 다시 지역 청소년을 위해 쓰인다는 점에서 직원들이 뿌듯함을 느낀다. 내가 그동안 받은 만큼 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통춤 배우는 학생들도 한몫을 한다. 선생이라고는 동네 언니들밖에 없는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실력이 대단하다. 가끔 센터 내에서 공연하던 것이 어느새 소문이 퍼져 방비엥 시내의 한 호텔에서 러브콜이 들어왔다. 매주 한 번씩 공연하고 버는 돈으로 공연할 때 필요한 전통 의상과 화장품 등을 산다. 남은 돈은 센터를 위해 쓴다.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카페는 함께일하는재단이 후원해서 만들었다. 카페와 수공예품의 판매 수익은 푸틴당청소년센터를 운영하는 데 쓰인다. 지금은 개인보다는 주로 단체 손님이 카페를 찾는다. 청소년센터와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이 카페를 이용하고, 수공예품을 산다.

**지역을 지키는 청년, 깨오**

"처음에는 카페에 오는 것이 너무 싫었어. 집이 멀기도 하고 커피를 만들어보기는커녕 먹어본 적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 그런데 여기에 있어보니까 돈도 벌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수 있고, 영어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아." 깨오에게 카페 증편에서 일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을 때 들은 대답이다.

깨오는 20살이던 2012년 12월부터 카페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자퇴했는데 교복과 자전거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금 친해지고 나서 다시 물었을 땐, 장녀이기

때문에 빨리 그만두고 농사일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참 기특한 아이다. 카페에서 일하게 된 건, 깨오를 교육하는 곳에 보내고 싶었던 어머니 덕분이다. 깨오 어머니가 카페 직원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등을 떠밀어 보내셨다고 한다.

깨오는 처음엔 카페 일에 관심을 갖지 못했다. 다른 마을 출신이어서 카페는 물론 푸틴당청소년센터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다르다. 스스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한다. 지금은 카페뿐 아니라 센터 전체 예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깨오의 마을 친구들은 모두 일찍 결혼해 마을을 떠나거나 일자리를 찾아 수도로 갔다. 그 마을에서 깨오만 유일하게 일찍 결혼하지 않고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이 되었다. 이제 깨오는 자기가 번 돈으로 동생들을 학교에 보낸다. 자기는 돈이 없어 다니지 못했지만 동생들은 가능한 한 많이 교육을 받기를 바란다.

깨오는 처음 올 때는 '헬로(Hello)' 한 마디 밖에 못했는데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 배우고 스스로 공부하여 웬만한 회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카페에 대한 운영 태도이다. 주어진 데로만 하려고 했던 때와는 달리, 자신이 꾸려나가고 싶은 카페에 대한 상이 있다.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꿈을 키우는 법도 배웠다. 깨오는 더는 카페에 돈을 벌러 오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러, 놀러 온다고 말한다.

**맛있는 커피보다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곳**

아직도 카페 증편은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인다. 그래서 카페에 오는 외국인들은 카페에 혼수 두기를 좋아한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카페의 운영과 판매전략, 마케팅 등에 대해 이리궁저러궁한다. 그럴 때마다 "네, 그렇죠. 많이 부족하죠."라고 대답하지만 속으로 말한다. '카페 증편은 맛있는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주는 곳이에요.'라고. 카페 증편의 직원들은 항상 웃으며 일을 한다. 일이 많아도 얼굴 한번 찌푸리는 법이 없다. 즐기며 일할 수 있는 직장보다 좋은 직장이 어디 있을까... 학생들은 센터에 놀러 왔다가 카페에 모여 담소를 나눈다. 때때로 직접 재료를 사 와서 간식을 만들어 나눠 먹기도 한다. 길을 지나던 사람들도 잠시 들려 쉬어가는 곳이다. 어느 누가 오더라도 반갑게 맞이하고 환영해주는 곳이다.

올해 5월 깨오는 한국을 방문한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라오스로 연수를 왔다가 맺은 인연으로 연수생들이 깨오를 위한 자금을 마련해준 덕분이다. 한국에 가면 카페슬로비에서 며칠간 인턴십을 하기로 했다. 카페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을 배우러 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과 마음을 배우러 간다.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차, 앞으로 점점 뜨거워질 카페 증편이 기대된다.

카페는 월요일만 휴무일이고,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지역사회와 아이들을 만나 소통하고 싶다면, 라오스 사람들의 훈훈한 마음을 느끼고 싶다면, 그리고 지역에서 스스로 자립하려는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카페 증편에 꼭 들러보길 바란다. ☺

3. 진열된 전통 수공예품

4. 수공예 직원들

5. 서빙하는 깨오의 모습

6. 카페 단체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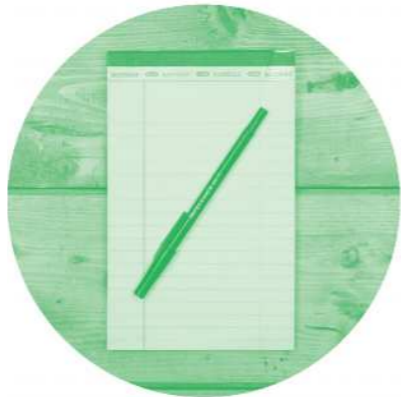




# 멋진 나와

# 멋진 지구를 위한

# 멋진 소비



이번 겨울에 유행하는 패딩 재킷을 삽니다.  
저녁에 요리할 파스타에 필요한 재료들을 삽니다.  
이사한 친구에게 선물로 줄 벽시계를 삽니다.

무인도에서 로빈슨 크루소처럼 평생을 혼자 지내지 않는 한 사람은 무언가를 사고, 사고, 또 사야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끊임 없이 갈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은 돈을 주고 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라는 경제행위를 통해 그 욕구를 해결합니다. 쌀과 조개를 맛바꾸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음식을 사고, 옷을 사고, 차를 사고, 집을 사는 등 경제활동에 치중해 왔습니다. 그 경제활동의 만족 여부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고, 평가받았죠.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돈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듯합니다.

옷장은 옷으로 넘쳐나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지만, 오늘 당장 입고 싶은 옷은 하나도 없습니다. 쓰고 있는 전화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통화도 잘되지만, 친구가 산 신형 휴대폰을 보자마자 새 핸드폰을 사러 대리점에 갑니다. 우주선 같은 매끈한 디자인의 수입차가 지나가면 45년 동안 내 발이 되어 준 자동차가 갑자기 똥차로 보입니다.

가지런히 옷장을 반쯤 채우고 있는 옷으로 고민 없이 옷을 입고 세련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을까요? 한 번 전화를 사면 고장 나서 바꿀 때까지 만족하며 살 수는 없을까요? 5년 전에 산 자동차가 지금도 세차만 하면 친구의 외제차보다 멋지다는 생각이 들 수는 없을까요? 돈 주고 사는 물건인데, 아왕이면 질리지 않고 깨끗하게, 자식에게도 물려주고 싶을 정도로 만족하며 쓸 수는 없는 걸까요?

나에게 아버지가 30년 전에 해외 출장에서 사오신 다목적 스위스 군용 칼이 있습니다. 그 조그맣고 빨간 칼은 참 편리하고 예뻐서 지금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 20년 전에 산 리바이스 501, 지금도 입을 게 마땅치 않거나 뭘 입을지 고민하기 싫을 때 골잘 꺼내 입곤 합니다. 내가 전에 쓰던 휴대폰인 모토로라 스타텍은 다른 사람이 쓰던 중고품이었습니다. 디자인이 아주 맘에 들었기에 휴대폰을 바꿀 마음은 추호도 없었지만, 몇 번의 고장과 수리를 거치다 보니 도저히 가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새 전화를 사야만 했어요. 물론 그때도 난 아주 많이 아쉬웠습니다. 위에 언급한 물건들은 현재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같은 디자인으로 생산되고 있거나, 품목의 특성상 단종됐지만 한 시대를 풍미한 것들입니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기업은 재빠르게 신제품을 내놓고 소비자가 소비 욕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계절마다 유행하는 트렌드를 파악하고, 남들에게 뒤지거나 무감각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신상품을 찾아 쇼핑을 합니다. 유행이 지난 상품들은 옷장에 처박히고,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고물상에서 폐기됩니다. 소비자는 다시 유행을 좇아 소비를 하고, 기업은 발 빠르게 신제품을 출시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어윤만을 좇는 기업과 바람직하지 않은 소비의 악순환은 세계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고 충동적인 소비는 튼튼한 경제를 부실하게 만들고, 건강한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소비를 중단할 수 없다면 현명하게, 욕식을 멈출 수 없다면 현명하게 하는 게 어떨까요? 소비를 하면서 동시에 사회와 자신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물건을 사서 오랫동안 쓰고 유행에 집착하지 않는 것, 내 맹목적인 소비활동 때문에 환경이 영향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계획적이고 절제된 소비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사용했고 아마도 우리의 아들딸들도 접하고 사용할 수 있을만한 물건들. 유행을 좇지는 않지만 그 누구보다 세련되고 멋있게 보일 수 있는 옷과 신발, 가방들. 고가는 아니지만 그 기능과 품질, 디자인이 다른 어느 것보다 뛰어난 제품들. 가격은 좀 비싸지만 장인 정신과 엄격한 품질관리로 대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명품들까지. 주위를 둘러보면 좋은 물건은 많습니다.

때마다 바뀌는 유행에 좌우되지 않고 진정한 멋을 아는 사람, 베스트셀러보다는 스테디셀러를 좋아하는 사람, 최신 유행의 재킷보다 엄마가 입던 빈티지한 트렌치코트가 더 끌리는 사람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멋진 나와 멋진 지구를 위한 멋진 소비, 어렵지 않습니다.

### 쇼핑은 베이직하게

**무지티셔츠** 브랜드는 상관없이 색이 좋은 무지 티셔츠 몇 개면 여름을 날 수 있습니다. 색깔은 주로 검정이나 카키 등 무채색 계열을 좋아합니다.


**비누** 환경을 생각하고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브랜드의 비누를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일반 비누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내 피부를 위해 동물을 희생시키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클래식 스니커즈** 최신 디자인의 운동화는 너무 화려하고 가격도 비쌉니다. 클래식한 스니커즈는 오래된 디자인이지만 베이직해서 질리지 않고 어떤 복장에도 잘 어울려요.

**메모지와 볼펜** 책상 위에는 항상 메모지와 볼펜이 있습니다. 만년필 등의 고가 필기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종이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직은 종이 위에 볼펜으로 메모하는 구식입니다.

**필름 카메라** 항상 작은 자동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닙니다. 자동 카메라는 노출을 재거나 포커스를 맞출 필요 없이 셔터만 누르면 되는 장점이 있죠. 일상을 찍는 걸 좋아하는 나에게는 필수품입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빨리 닳아서 거의 유선전화처럼 충전하면서 쓰고 있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완전히 고장 나서 수리가 불가능하지 않다면 휴대폰을 바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컬러스** 가장 좋아하는 잡지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컬러스는, 주제를 다루는 자세가 조금은 다르고 큰 주제도 자연과 인간 쪽으로 각각 조금씩 기울어 있지만, 나에게 큰 영향을 준 잡지들입니다. 

### 김현성

패션 포토그래퍼. 환경과 동물을 생각하는 패션문화잡지 「오보이」(OHBOYZINE.EG-LOOS.COM)의 발행인이자 편집장. 동물을 꿈쩍이 사랑하고, 새로운 것보다는 오래되고 익숙한 것을 좋아하며, 외모도 생각도 사진마저도 군더더기 없이 심플해서 멋진, 뱃속까지 아날로그일 것 같은 그의 소원은 세계 평화

이 칼럼은 김현성이 쓴 책 「그린보이」(시드페이퍼, 2012)에 수록된 글들로 채워집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 「그린보이」는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생활을 통해 자연과 사람과 동물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지구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 버려진 가구의

# 따뜻한

# 변신!

글  
이하영 전통공예 기획자

-  
사회적기업 <문화로놀이짱>의  
'손이 기쁜 목공워크숍:  
아늑한 나무 스탠드 만들기' 체험기



국내에서 버려지는 폐목재는 연간 약 200만 톤이며, 서울시에서만 2년에 16만 톤의 폐목재가 버려지고 있다. 문화로놀이짱은 이렇게 버려지는 목재들을 모아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가구와 소품을 만들어내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공방, 목재 창고를 운영하며 다양한 목공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함박눈이 내리던 겨울날, 사회적기업 '문화로놀이짱'과 함께 버려진 가구들을 재활용해 새로운 가구로 탄생시키는 특별한 경험을 나누는 현장을 찾아갔다.



나는 손재주가 많은 아빠를 닮아,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뜨개질이나 십자수, 이래저래 뭔가 조립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언젠가는 내 손으로 가구 만들기에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다. 나무라는 재질이 주는 따뜻한 느낌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생활의 일부인 가구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쓰는 그 특별한 경험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지난 12월, 함께일하는재단 페이스북에서 버려진 폐목재를 이용해 나무 스탠드를 만드는 체험을 한다는 이벤트를 보고 남편과 함께 서둘러 신청했다. 마침 신혼집 침대 머리맡에 놓아둘 스탠드가 하나 필요하던 참이었다.

나는 전통공예 기획자로 매번 내가 축제나 공연을 진행하는 입장이어서, 체험이나 이벤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늘 부러워만 했었는데, 드디어 나도 체험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니 두근두근 설레기까지 했다.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리던 토요일 아침, 분당에서 마포까지 꽤 먼 거리를 달려 도착한 곳은 '문화로놀이짱'이라는 아담한 작업실이었다. 열 명 남짓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날 우리가 만든 것은 버려진 목재와 강통을 활용해서 만든 나무 스탠드였다. 모양이 좀 투박해 보이기 해도 버려질 뻔한 물건들이 세상에 따뜻한 빛을 비추는 스탠드로 다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매우 의미 있게 느껴졌다.

먼저 '문화로놀이짱' 스태프로부터 스탠드 만드는 과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2인 1조가 되어 작업을 시작했다. 나무를 톱으로 잘라 사포질하고, 드릴로 구멍을 뚫어 나사도 박고, 힘을 써야 하는 부분은 남편의 도움을 받아가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만들었다. 스탠드 상부를 완성했을 즈음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스태프 한 분이 '문화로놀이짱'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설명을 해주셨다.

사회적기업 '문화로놀이짱'은 버려지는 목재들을 모아 스토리가 담긴 새로운 가구와 소품으로 만들어 되팔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공방, 목재 창고를 운영하며 다양한 목공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등 요즘에 보기 드문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었다. 현재는 마포 월드컵공원 건너편 주차장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쓰고 있지만, 아끼자기하게 잘 꾸며놓은 덕분에 여기저기 쌓여있는 폐목재들조차 멋스러운 소품처럼 보였다.

설명을 듣고 와서 더욱 의욕이 샘솟은 우리 부부. 열심히 작업하다 보니 나는 사포질에, 남편은 톱질에 소질이 있음을 발견했다. 남편의 톱질하는 모습을 때마침 방송 촬영팀에서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반면, 드릴에는 영 소질이 없어서 조심하달라고 신신당부한 가는 드릴 심을 '뚝!' 하고 부러뜨리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나무의 갈라짐을 막고, 자연스러운 색을 나게 해주는 레몬 오일을 바르고, 전구를 끼워 완성한 우리의 스탠드!

완성된 스탠드를 한데 모아서 불을 켜보는 것으로 이날의 체험은 마무리되었다.

어쩌면 무심코 버려질 수도 있었던 나무들로 이렇게 따뜻한 빛을 뿜어내는 스탠드를 만들고 보니, 처음에 단순히 스탠드를 만들기 위해 참여했던 이 체험이 갈수록 식막해져 가는 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불어넣은 것 같아 더욱 뜻깊게 다가왔다.

이렇게 만든 스탠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부부의 침대 옆에서 따뜻한 불빛을 밝히고 있고, 우리의 추억을 머금은 채 늘 그곳에 있어주겠지. ☺



### 이하영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인 성격이라 클래식 기타, 인라인스케이트, 사진, 수영 등 여러 가지 경험하는 걸 좋아하지만, 늘 발만 담그는 정도에서 만족하고 마는 전형적인 끈기부족형. 최근에는 북유럽 스타일 인테리어와 지구환경에 관심이 많은 전통공예 기획자.



# 꿈을 키우는

# 서일화

# 사회 초년생

'기억한다는 것은 산다는 것 To remember is to live'이라는 신학자 부버Martin Buber의 말처럼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해야 할 새로운 날들을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날은 시간이 흐르면 지난날이 되기 마련이다. 곱디고운 아내의 처녀 시절, 첫 울음을 터트리던 아이의 성장, 젊음 하나만으로도 찬란했던 청춘의 순간들... 삶에 지쳐 잠시 잊고 지냈던 어제의 빛나던 순간들은 빛바랜 사진 속에 지난날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

함께 기억하고 싶은 페이지 '나의 어제를 나누어 드립니다'는 각 가정의 앨범 속 사진을 통해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봄으로써, 잊고 있던 기억의 소중한 가치를 되찾는 페이지다. 앨범 속 옛 사진을 꺼내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기억의 따스함을 담아내는 이 페이지가 함께 일하는 모두의 어제를 기억하는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



2



1. 가장 절친한 직장 선배들과 옥상 텃밭에서
2. 가장 아끼는 어릴 적 사진
3. 2살 무렵 아버지와 즐거운 한때
4. 동생과 즐거운 한때

3



재단의 최연소 입사자 서일화 씨(23세)는 1992년 광주광역시에서 1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12세가 되던 해에 부모님의 사업으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밝고 명랑한 성격을 가진, 여느 또래들처럼 사춘기를 겪으며 부모님 속을 태우기도 한 평범한 여고생이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얼마 후 충격으로 어머니가 쓰러지시면서 하루아침에 가족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 되었다.

4



“학교에서 일어난 작은 이야기들까지 다 털어놓을 만큼 아버지와 참 각별했어요.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첫 면접을 보는 날 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났다니깐요.”





5



8



9



사회복지사의 꿈을 안고 졸업 후 또래 친구들과처럼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엄마와 동생들을 위해 취업을 선택했고, 2011년 3월, 졸업과 동시에 재단 재정총무팀의 막내로 입사했다. 올해 3월에 입사만 3년이 된 그녀는 여전히 재단의 막내이지만, 아무지게 일을 해 나가는 열정만큼은 직장 선배들 못지않다. 시간 틈틈이 옥상 텃밭을 가꾸던 추억, 직원들의 단합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체육대회 등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그녀는 언제나 밝고 씩씩한 모습으로 직원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6

“재단에 입사하기 전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래서 했지, 뭘 스스로 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혼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언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학교 다닐 때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도 되고... 철이 든 것 같아 이제는 아버지께 너무 감사해요.”



7

- 5. 초등학교 입학 무렵의 가족사진
- 6.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 종종 상을 받아오기도 했다.
- 7. 가족 모두가 벚꽃축제에 갔었다. 아버지가 사진을 찍으시던 기억이 생생하다.
- 8. 중학교 졸업사진
- 9. 재단 직원들과 모금 생방송 현장 지원 업무를 했었을 때
- 10. 입사 후 가장 즐거웠던 체육대회



10

〈함께 기억하고 싶은 페이지〉는 소셜벤처 '기억발전소'와 함께합니다.

기억발전소는 '기억에 숨을 불어넣는 문화사업'을 모토로 전시, 출판, 교육 기획을 통해 기록문화의 지평을 넓히고 사진 중심의 개인사/생활사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소셜벤처다. 사진과 기억을 매개로 '누구나'의 삶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궁극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을 소셜 미션으로 삼고 있다. 기억발전소는 마치 어두운 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듯 사람들의 마음속 기억을 밝힐 수 있는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가 되기를 꿈꾼다.

 [www.memoryplant.com](http://www.memoryplant.com)  
기억발전소 [www.facebook.com/memoryplant.com](https://www.facebook.com/memoryplant.com)



# WT News

2013. 4. ~ 12.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 키움터 개관 4/17



서울 금천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소셜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키움터가 개관하였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주택문제 해결과 영세한 봉제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 소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금천협동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글로벌 드라이브 프로젝트 발대식 및 출항 4/28



재단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3대륙 20개국의 사회적기업을 방문하여 임팩트투자 가능성을 조사하는 글로벌드라이브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조사팀인 스티븐리(LGTVP Accelerator)와 머라이어(유엔난민기구 Associate Protection Officer(child))는 2013년 4월 28일 동해에서 배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출발하며 프로젝트의 첫발을 내디뎠다. 그 후 9개월간 몽골, 카자흐스탄, 요르단, 남아공 등의 사회적기업 64곳을 방문해 27개의 보고서와 24개의 인터뷰 영상을 축적하였다. 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 해외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를 형성해 임팩트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라이트어랩프 자립지원사업 지원 협약식 5/15



희망TV SBS에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부모의 실직, 빈곤으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라이트어랩프 사업이 지난해 12개소의 지원기관과 협약식을 맺었다. 특히 이번에는 각 기관의 특성을 살려 진로직업체험활동, 특기적성지원, 지역사회조직 지지기반 마련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성과가 보다 가시화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KT 대학생 봉사단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현장 탐방 5/24



재단은 KT와 함께 대학생 봉사단에게 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대학생 봉사단은 희망동네(협동조합), 문화로놀이팡(사회적기업) 등을 직접 탐방하며 설명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아카데미는 현장 탐방 외에도 사회적기업 인턴 운영, 다양한 워크숍 등도 꾸려졌으며 우수학생에게는 일본 사회적경제 탐방 기회도 부여하였다.

KEPCO와 함께하는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발굴·지원사업 기금전달식 6/27



재단은 한국전력공사(KEPCO)와 함께 협동조합 기본원칙과 운영 원리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교육, 컨설팅,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지난해 재단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에 선정된 9개소 협동조합에 기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열었다. 특히 이 사업은 민간 최초로 협동조합에 사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협동조합의 시행착오와 실패요인을 축소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G마켓 등록금 지원 캠페인 성과보고회 10/5



일하는 청년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G마켓 등록금 지원 캠페인'의 성과보고회가 지난해 10월 5일 재단에서 이뤄졌다. 이 캠페인은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20명을 선발해, 6개월간 소비생활개선, 자기의 재발견 등의 미션을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학생들은 이번 미션 수행으로 사회 현실에 대한 이해, 효율적인 소비 생활의 중요성, 인생 계획의 필요성 등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 WT News

2014. 1. ~ 3.

### 'KEPCO 희망카페' 빈자리(Been Zari) 개점 10/23



재단은 한국전력공사(KEPCO)와 함께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KEPCO 희망카페 설립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에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리(주)가 선정되어, 지난해 10월 23일 '빈자리(Been Zari)' 카페가 서울시 영등포구에 문을 열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다.

### 유한킴벌리 시니어 기금사업 중간보고회 12/19



재단은 한국의 심각한 고령화와 노인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한킴벌리와 '시니어 기금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그 일환으로 액티브시니어 생활용품 공모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19일 시니어 기금사업의 중간보고회가 유한킴벌리 본사에서 열렸다. 이 사업을 통해 1년간 13개의 소기업을 발굴하고, 27개 시니어 아이템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또한 한국 최초로 시니어비즈니스스쿨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 서울시 전통시장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지원사업 교육모임 1/10



지난 1월 10일 '동원시장 협동조합 함께 만들기 교육모임'이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동원시장에서 이뤄졌다. 동원시장은 재단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협동조합 운영모델개발 및 설립지원사업'에 선정된 곳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모임은 동원시장 내 일반 상인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구성과 사업에 대한 소개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 매니아기빙서클 유유자적 커뮤니티 공연 개최 12/7



무중력 청소년(은둔형외톨이)의 사회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집밖에서유유자적프로젝트의 부족파티가 지난해 12월 7일 흥대 벨로주(Veloso)에서 열렸다. 매니아기빙서클의 기부금으로 시작된 이번 사업은 대개 3개월 과정으로 2개월 교육 후 작은 공연을 진행하고,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서 부족파티를 연다.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유자 청소년 밴드 "유학생 (유자살롱+학생 합성어)"의 공연이었다. 악기를 접한 시간이 길지 않았고, 이전과 달리 작은 공연 등을 통해 미리 호흡을 맞춰볼 기회를 갖지 못해 많은 곡을 연주하지는 않았지만, 공연 후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특히 무대 위에서 보여준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는 유자프로젝트의 실질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돌봄서비스 분야 취약계층 고용안정화 사업 성과보고회 1/22



주택금융공사와 재단은 취약계층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안정을 위해 고용 지속성을 보장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재단은 사업 수행기관 5개소와 함께 1년간 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사업의 평가 및 개선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14 한화와 함께하는 사회적기업 공감토크 '함께 더 멀리' 2/20



지난 2월 20일 63컨벤션센터에서 '2014 한화와 함께하는 사회적기업 공감토크 <함께 더 멀리>'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2년간 '한화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날 몬드라곤대학 총장인 이투랄데가 현장기업에 바탕을 둔 이론과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사례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행사장 한편에 20개 친환경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전시하여 각 기업의 상품을 홍보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소식지를 제작하면서 지난 호와 이번 호 사이에 시간적으로 많은 공백이 있어 어떻게 하면 1년간의 소식을 잘 정리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은주씨의 지휘 아래서 새로이 홍보팀에 합류한 영주씨와 소식지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소식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노력과 힘이 들어갔지만 특히 은주, 영주 두 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장인후(기부자관리팀 팀장)



사진출처: 제주슬로비 블로그(blog.naver.com/jeuslobbie)

난 아직 제주도에 한 번도 못 가봤다. 그리고, 때론 아주 사소한 이유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한다. 한영미 대표님과 인터뷰는 내 마음속에 숙제처럼 자리한 제주도라는 매력 넘치는 심지에 불을 붙이기 충분했다. 대표님이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신 제주슬로비만의 메뉴, 애월리에서 생산된 취나물과 버섯장아찌를 얹어 문어쌈장에 비벼먹는 애월비빔밥과 현무암처럼 생긴 주저에 매일 완판 된다는 제주돌빵은 어떤 맛일지 궁금해서 슬쩍 검색해봤을 뿐인데,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다. 그 중에 압권은 다금바리보다, 고기국수보다 강렬한 비주얼의 '봉봉빙수'!

향긋한 불내음이 물려올 것 같은 자태에 나도 모르게 눈과 마음을 차례로 빼앗겨 버렸다. 봉봉빙수처럼 고운 자태의 유채꽃이 지기 전에 제주에 가야겠다.

윤영주(홍보팀 책임PR매니저)

**추억1.** 추억은 사람을 의기양양하게 만든다고 한다. 편집하기를 쓰며 되짚어보니 8월은 사람에 대한 추억이다. 의미 있는 대화가 흐르고, 웃음이 끊이지 않고, 때론 머리를 주억거린다. 내가 앉은 자리에서 고립감 비슷한 감정이 들 때, 그보다 나은 세상이 존재하고 거기에 사람이 있다고 말해준다. 은혜로운 일이다. 그곳에 먼저 간 사람이 있다니.

**추억2.** 건우와 함께 보낸 주말을 모니터 안에 넣고, 그 추억으로 일주일을 보낸다. 미안한 마음을 보태서...

이은주(홍보팀 선임PR매니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CSO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한마당**

올해 7회를 맞은 사회적기업월드포럼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함께일하는재단은 "Social Change through Social Enterprise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변화)"를 주제로 정하고, 아시아 및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 해소,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해나갈 사회적기업을 부각시킬 중요한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독자 참여 안내**

매호 독자 한 분을 선정하여 사회적기업 생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드리고, 그 후기를 받아 꾸려지는 <착한 서포터즈> 코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재단 SNS를 주목해 주세요. 다음 호 발간에 앞서 체험할 상품에 대한 안내와 서포터즈 모집 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페이스북 [www.facebook.com/hamkke.org](http://www.facebook.com/hamkke.org) 트위터 @WT\_hamkke

**광고 기부 안내**

사회적기업 상품, 지역 특산물, 공정무역 제품 등 정직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이른바 착한 상품을 소개·홍보할 수 있도록 「함께 일하는 사회」의 광고지면을 내어 드리는 <착한소비365 광고기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hamkke@hamkke.org)로 문의해 주세요.

**구독 해지 및 주소 변경**

함께일하는재단 홍보팀 02-330-0713~5, hamkke@hamkke.org

무료로 배포되는 「함께 일하는 사회」는 재단 홈페이지([www.hamkke.org](http://www.hamkke.org))에 업로드된 PDF나, 재단 블로그([blog.daum.net/hamkkeorg](http://blog.daum.net/hamkkeorg))에 포스팅된 글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행사명	Social Enterprise World Forum 2014 Seoul, Korea(사회적기업월드포럼 2014)
주제	주제: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변화(Social Change through Social Enterprise) 부제: 사회혁신, 사회적투자, 일자리창출(Social Innovation, Social Investment and Job Creation)
일시	사전행사: 2014년 10월 12일(일) ~ 13일(월) (1박 2일) - 청년캠프 본 행사: 2014년 10월 14일(화) ~ 16일(목) (2박 3일) - 사회적기업 투어, 페어 및 포럼
장소	The-K 서울호텔(서울시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대상	국내·외 사회적기업가 / 사회적기업 지원단체 / 사회적기업 관련 연구원, 교수 및 학생 / 재단 및 자선가 사회적 투자자 및 임팩트 투자자, 투자은행, 벤처캐피탈 투자자 / CSR 전문가, 정부정책전문가, 국제개발전문가 NGO 및 비영리단체 시민 등
주최 / 주관	(재)함께일하는재단 / SEWF2014 한국 조직위원회
협력기관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조직
후원 및 협찬	정부, 기업, 유관기관, 언론사 등
공식언어	한국어, 영어(동시통역 제공)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및 조직으로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CSO을 아우르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의미합니다.

- 이진행사는 여기를 참고하세요([www.sewfonline.com](http://www.sewfonline.com), SEWF 2013, Canada : <http://www.socialenterpriseworldforum.org>).
- 월드포럼 2014 공식 홈페이지는 4월 중 오픈 예정입니다.
- 문의처: (재)함께일하는재단 SEWF 2014 조직위원회 사무국 김진주 매니저(이메일: [jjkim@hamkke.org](mailto:jjkim@hamkke.org) / 전화: 02-330-0722)